

영어 FM방송 청취 행태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영어 FM방송 청취 행태 조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8월

주관연구기관 : 한국궤립조사연구소

책임연구원 : 허진재(한국궤립조사연구소 이사)

연구 원 : 강희정(한국궤립조사연구소 차장)

정현정(한국궤립조사연구소 연구원)

Contents

목 차

요 약 문

I. 조사 개요	1
II. 영어 FM 청취자 조사 결과	2
III. 영어 FM방송 청취자 조사 결과 분석	10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12
2. 조사 설계	13
3. 주요 조사 내용	15
41. 응답자 특성 - 영어 FM방송 청취자	16
42. 응답자 특성 - 일반 외국인	20

II 영어 FM방송 청취자 조사 결과 분석

1. 청취 행태	21
1) 청취 빈도	21
2) 지난 주 청취 요일	22
3) 하루 평균 청취 시간	23
4) 주 청취 장소	25
5) 주 청취 기기	26
2. 청취 계기 및 이유	27
1) 청취 계기	27
2) 청취 이유	29
3) 청취 권유 경험	31
4) 청취 권유 이유	31

3. 방송 평가	33
1-1-1) 청취 프로그램 - 서울 TBS-eFM	33
1-1-2) 선호 프로그램 - 서울 TBS-eFM	34
1-2-1) 청취 프로그램 - Busan-eFM	35
1-2-2) 선호 프로그램 - Busan-eFM	37
1-3-1) 청취 프로그램 - 광주 GFN	38
1-3-2) 선호 프로그램 - 광주 GFN	39
2) 정규 뉴스 프로그램 청취	40
3-1)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서울 TBS-eFM	41
3-2)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Busan-eFM	42
3-3)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광주 GFN	43
4)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 싶은 뉴스 정보	44
5) 프로그램 중요 구성 요소	46
6) 음악 만족도	47
7) 음악 불만족 이유	48
8) 듣고 싶은 음악 장르	50
9) 수신 상태	51
4. 채널 도입 성과	52
1) 영어 FM방송 전국 확대에 대한 의견	52
2)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53
2-1)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지역 날씨 예보	54
2-2)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문화 및 예술정보 수집	55
2-3)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교통 정보	56
2-4)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지역 시설 정보	57
3) 방송 내용 중 생활 도움이 된 정보	58
4) 영어 FM방송의 한국 생활 도움 정도	60
5) 영어 FM방송 청취 후 한국 인식 변화	61
5. 제안 사항	62
1) 확대 개편 희망 장르	62
2) 영어 FM 향후 개선할 점	63

III

일반 외국인 조사 결과 분석

1. 영어 FM방송 인지 및 청취경험	65
1) 영어 FM방송 인지도	65
2) 영어 FM방송 청취 경험	66

2. 영어 FM방송에 대한 인식	67
1) 영어 FM방송 청취 의향	67
2) 영어 FM방송 청취 비의향 이유	68
3) 영어 FM방송 도입 시 한국 이미지 긍정 인식 도움 정도	69
3. 기 타	69
1) 한국 뉴스 접촉 매체	69
2) 한국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점	71

IV

요약 및 결론

1. 조사 내용 요약	72
1) 영어 FM 청취자 조사 결과	72
2) 일반 외국인 조사 결과	73
2. 주요 발견 사항	77
1) 외국인 청취자의 청취 행태 특징	77
2) 영어 FM방송 향후 운영 방향	78

부 록

1-1) 청취자 전체 교차분석	79
1-2) 서울 TBS-eFM 청취자 교차분석	116
1-3) Busan-eFM 청취자 교차분석	167
1-4) 광주 GFN 청취자 교차분석	220
2-1) 일반 외국인 전체 교차분석	270
2-2) 서울 거주 외국인 교차분석	282
2-3) 부산 거주 외국인 교차분석	292
2-4) 광주 거주 외국인 교차분석	302
3-1) 청취자 온라인 설문지	312
3-2) 일반 외국인 면접 설문지	346

Contents

표 목 차

<표 1> 조사 설계 - 인터넷 조사	13
<표 2> 조사 설계 - 면접 조사	14
<표 3> 주요 조사 내용	15
<표 4> 영어 FM방송 청취자 응답자 특성 - 전체	16
<표 5> 영어 FM방송 청취자 응답자 특성 - 서울 TBS-eFM	17
<표 6> 영어 FM방송 청취자 응답자 특성 - Busan eFM	18
<표 7> 영어 FM방송 청취자 응답자 특성 - 광주 GFN	19
<표 8> 일반 외국인 응답자 특성	20
<표 9> 청취 빈도 - 응답자 특성별	21
<표 10> 지난 주 청취 요일 - 응답자 특성별	23
<표 11> 하루 평균 청취 시간 - 응답자 특성별	24
<표 12> 주 청취 장소 - 응답자 특성별	26
<표 13> 주 청취 기기 - 응답자 특성별	27
<표 14> 청취 계기 - 응답자 특성별	29
<표 15> 청취 이유 - 응답자 특성별	30
<표 16> 청취 권유 이유 - 응답자 특성별	33
<표 17>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 싶은 뉴스 정보 - 응답자 특성별 ..	46
<표 18> 프로그램 중요 구성 요소 - 응답자 특성별	47
<표 19> 음악 불만족 이유 - 응답자 특성별	49
<표 20> 듣고 싶은 음악 장르 - 응답자 특성별	51
<표 21> 방송 내용 중 생활 도움이 된 정보 - 외국인	59
<표 22> 방송 내용 중 생활 도움이 된 정보 - 내국인	59
<표 23> 확대 개편 희망 장르 - 응답자 특성별	63
<표 24> 영어 FM 향후 개선할 점 - 외국인	64
<표 25> 영어 FM 향후 개선할 점 - 내국인	64
<표 26> 영어 FM방송 청취 비의향 이유 - 응답자 특성별	68
<표 27> 한국 뉴스 접촉 매체 - 응답자 특성별	70
<표 28> 한국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점	71

Contents

그림 목 차

[그림 1] 청취 빈도	21
[그림 2] 지난 주 청취 요일	23
[그림 3] 하루 평균 청취 시간	24
[그림 4] 주 청취 장소	25
[그림 5] 주 청취 기기	27
[그림 6] 청취 계기	28
[그림 7] 청취 이유	30
[그림 8] 청취 권유 경험	31
[그림 9] 청취 권유 이유	32
[그림 10] 청취 프로그램 - 서울 TBS-eFM	34
[그림 11] 선호 프로그램 - 서울 TBS-eFM	35
[그림 12] 청취 프로그램 - Busan-eFM	36
[그림 13] 선호 프로그램 - Busan-eFM	37
[그림 14] 청취 프로그램 - 광주 GFN	39
[그림 15] 선호 프로그램 - 광주 GFN	40
[그림 16] 정규 뉴스 프로그램 청취	41
[그림 17]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서울 TBS-eFM	42
[그림 18]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Busan-eFM	43
[그림 19]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광주 GFN	44
[그림 20]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 싶은 뉴스 정보	45
[그림 21] 프로그램 중요 구성 요소	47
[그림 22] 음악 만족도	48
[그림 23] 음악 불만족 이유	49
[그림 24] 듣고 싶은 음악 장르	50
[그림 25] 수신 상태	52
[그림 26] 영어 FM방송 전국 확대에 대한 의견	53
[그림 27]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54
[그림 28]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지역 날씨 예보	55
[그림 29]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문화 및 예술정보 수집	56
[그림 30]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교통 정보	57
[그림 31]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지역 시설 정보	58
[그림 32] 영어 FM방송의 한국 생활 도움 정도	60
[그림 33] 영어 FM방송 청취 후 한국 인식 변화	61
[그림 34] 확대 개편 희망 장르	62

[그림 35] 영어 FM방송 인지도	65
[그림 36] 영어 FM방송 청취 경험	66
[그림 37] 영어 FM방송 청취 의향	67
[그림 38] 영어 FM방송 청취 비의향 이유	68
[그림 39] 영어 FM방송 도입 시 한국 이미지 긍정 인식 도움 정도	69
[그림 40] 한국 뉴스 접촉 매체	70

요 약 문

I.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영어 FM방송의 청취 행태 분석을 통해서 방송이 시작된 지 1년이 된 서울, 부산, 광주 지역 영어 FM방송의 효과를 점검하고, 영어 FM방송 청취자들의 의견을 방송 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또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들의 영어 FM방송 인지도 및 청취율, 향후 청취 의향을 알아봄.

조사는 영어 FM방송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와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로 병행 실시됨. 영어 FM방송 청취자 조사는 내·외국인 포함 서울 442명, 부산 114명, 광주 113명, 총 669명을 대상으로, 일반 외국인 조사는 서울 254명, 부산 101명, 광주 50명, 총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표 1> 조사 설계 - 인터넷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영어 FM방송 청취자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조사 지역	서울		부산		광주	
표본 수	379명	63명	60명	54명	54명	59명
조사 방법	영어 FM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인터넷 조사					

<표 2> 조사 설계 - 면접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등록외국인 중 ① 가청지역에 거주하고 ②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③ 영어 청취가 가능한 13세 이상 외국인		
조사 지역	서울	부산	광주
표본 수	254명	101명	5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II. 영어 FM 청취자 조사 결과

인터넷 조사로 실시된 서울, 부산, 광주 영어 FM방송 청취자 조사는 총 66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영어 FM 청취자를 대상으로는 큰 범위에서 청취 행태, 청취 계기 및 이유, 방송 평가, 채널 도입 성과, 제안 사항을 조사함.

1. 청취 행태

- 평소 영어 FM방송 청취 빈도를 묻은 결과, ‘일주일에 1-2일’(26.3%)이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3-4일’ (21.8%), ‘일주일에 5-6일’(13.3%), ‘매일’(18.7%) 등 일주일에 1일 이상 청취자가 80.1%로 나타남
- 지난 일주일 동안 영어 FM방송 청취 요일로는(복수 응답), 평일 청취가 주말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남. 평일(월~금) 청취율은 50% 내외인 반면, 주말(토~일)은 20%대로 차이가 큼.

- 영어 FM방송 청취 시, 하루 평균 청취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상 청취’는 30.7%, ‘1시간 미만 청취’는 69.3%로 나타남.
- 영어 FM방송 주 청취 장소로 전체 청취자의 34.8%가 ‘자가 운전 중 차안에서 카라디오’로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집’(25.9%) > ‘학교/직장 등 집을 제외한 고정된 장소’(16.9%) > ‘야외 이동 중 개인 라디오’(15.5%) > ‘버스에서 버스의 카 라디오’(4.9%) 순임.
- 영어 FM방송을 주청취 기기로는 ‘카라디오 포함 라디오’(58.0%)를 통한 청취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20.8%)과 ‘PMP/MP3 등 휴대용 기기’(20.2%)가 비슷한 비율로 응답됨.

2. 청취 계기 및 이유

- 영어 FM방송 청취자들은 ‘주위 사람의 권유’(32.7%)나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31.7%) 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인터넷을 검색’(20.3%)하거나 ‘영어 FM방송 광고/홍보활동’(14.5%)을 보고 청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영어 FM방송을 청취하는 이유로 외국인 청취자는 ‘뉴스/시사 정보’(17.6%) 때문이란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정보’(13.1%) = ‘진행숨씨’(13.1%) > ‘좋은 음악’(12.5%) = ‘습관적/익숙해서’(12.5%) 등 순으로 응답됨. 한편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어 듣는다고 11.9%로 나타나 외국인들의 청취 이유는 다양하게 분산됨.
-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 FM방송 청취를 권유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해 전체 청취자의 74.3%가 ‘있다’고 응답함.

3. 방송 평가

- 서울 TBS-eFM청취자(N=442)를 대상으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이라도 청취한 프로그램을 모두 알아본 결과, 오전 7시 출근 시간대에 Hans Schattle이 진행하는 ‘This Morning’ 청취 경험자가 가장 많음. 오전 9시대부터 오후 8시대까지 30% 내외의 청취 경험률을 보인 가운데, 오후 8시 ‘M-Town’의 경우 37.3%로 오후 시간대 프로그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자정 이후 새벽 시간대 프로그램 청취 경험률은 10% 내외로 나타남.

[그림 10] 청취 프로그램 - 서울 TBS-eFM

(%)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12:00 AM	Music Planet [J]	19.7		
2:00 AM	Jazz Hour [Forest Muther]	10.0		
3:00 AM	Rough around the Edges [Stuart Reece]	8.6		
5:00 AM	Out of Bed with Travis [Travis]	11.8		
7:00 AM	This Morning [Hans Schattle]	43.7	The Classical Collection [Choi Dahye]	12.2
9:00 AM	Kickstart [Erica Lee]	30.8		
11:00 AM	Soul of Asia [Sid Kim]	27.4	Weekly Review [Kim Byoung Joo]	18.3
12:00 PM	K-Popular with As One [As One]	30.5		
2:00 PM	The Steve Hatherly Show [Steve Hatherly]	31.7		
4:00 PM	Drivetime [Sam & Annabelle]	35.1		
6:00 PM	Evening Show [Ahn Junghyun]	34.8	Weekend Chart [James Atkinson]	12.4
8:00 PM	M-Town [Sue Park]	37.3		
10:00 PM	On the Pulse [Robert Joe]	21.7		

- 서울 TBS-eFM 청취자(N=442)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청취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즐겨 듣는 프로그램을 3개까지 중복으로 물은 결과,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This Morning’(33.9%)이 선호도 평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오후 8시 ‘M-Town’(21.5%) > 오후 6시 ‘Evening Show’(20.4%) > 오전 9시 ‘Kickstart’(18.8%) > 오후 2시 ‘The Steve Hatherly Show’(17.2%)순임.
- Busan-eFM 청취자(N=114)를 대상으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 경험률을 알아본 결과, 서울 TBS-eFM의 ‘This morning’과 동일한 시간대인 오전 7시 출근 시간대 ‘Morning wave in Busan’ 청취 경험이 49.1%로 가장 높음.

[그림 12] 청취 프로그램 - Busan-eFM

(%)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12:00 AM	Midnight Café	8.8		
2:00 AM	Jazz Hour [Forest Muther]	4.4		
3:00 AM	Rough around the Edges [Stuart Reece]	3.5		
5:00 AM	Scent of Tradition [Kali Kim]	1.8		
6:00 AM	Morning Breeze	4.4	It Classic [Caelyn Shin]	4.4
7:00 AM	Morning wave in Busan [Petra R. Jung]	49.1	B-Café [Katherine Bang]	11.4
9:00 AM	Travel bug [Robert Holley, Lee Yei-rang]	21.9	Weekly Review [Kim Byoung Joo]	14.0
10:00 AM	Travel bug [Robert Holley, Lee Yei-rang]	29.8	Funfun Stage [Chris K Bacon, Tina Park]	13.2
11:00 AM	World Music Station [Philippe Cho]	10.5		
12:00 PM	Mid-day Break [ISAK]	12.3		
2:00 PM	K-POP Zone [Kim Young]	21.1	Sweet Dates [Rhiannon Shepherd, Simon MacAvoy]	14.9
3:00 PM	See the World [Sean O'Malley]	34.2	Sweet Dates [Rhiannon Shepherd, Simon MacAvoy]	14.0
4:00 PM	Drivetime [Sam & Annabelle]	16.7		
6:00 PM	Inside Out Busan [Brandon Na]	31.6	Weekend Chart [James Atkinson]	11.4
			Let's talk Busan [Cindy Park]	15.8
8:00 PM	Evening Groove [Dorothy Nam]	15.8		
10:00 PM	Midnight rider [Chad Kirton]	22.8		

- Busan-eFM 청취자(N=114)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청취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즐겨 듣는 프로그램을 3개까지 중복으로 물은 결과,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Morning wave in Busan’이 선호도 평가에서도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오후 3시 ‘See the World’(25.4%) > 오후 6시 ‘Inside out Busan’(21.1%) > 오전 10시 ‘Travel bug’(19.3%) > 오후 10시 ‘Midnight rider’(14.9%) 순임.
- 광주 GFN 청취자(N=113)를 대상으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 경험률을 알아본 결과, 오후 6시 ‘City of Light’가 67.3%로 가장 높아 서울TBS-eFM과 Busan-eFM이 출근 시간대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청취 경험률을 보인 것과 차이를 보임.

[그림 14] 청취 프로그램 - 광주 GFN

(%)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12:00 AM	Music Planet [J]	15.9		
2:00 AM	Jazz Hour [Forest Muther]	4.4		
3:00 AM	Rough around the Edges [Stuart Reece]	5.3		
5:00 AM	Out of Bed with Travis [Travis]	8.0		
7:00 AM	This Morning [Hans Schattle]	25.7	The Classical Collection [Choi Dahye]	10.6
9:00 AM	Kickstart [Erica Lee]	23.0		
11:00 AM	Hello, Korea [Charlene Jones]	34.5	Saturday Brunch [Hwang Young Jin]	26.5
			Weekly Review [Kim Byoung Joo]	9.7
12:00 PM	K-Popular with As One [As One]	48.7	Sunday Bubble [Nathaniel H. Kent]	31.9
2:00 PM	The Steve Hatherly Show [Steve Hatherly]	27.4		
4:00 PM	Drivetime [Sam & Annabelle]	29.2		
6:00 PM	City of Light [Michael Simning]	67.3	Weekend Chart [James Atkinson]	16.8
8:00 PM	M-Town with Pete Ross	50.4		
10:00 PM	On the Pulse [Robert Joe]	11.5		

- 광주 GFN 청취자(N=113)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청취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즐겨 듣는 프로그램을 3개까지 중복으로 물은 결과,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오후 6시 ‘City of Light’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오후 8시 ‘M-Town’(32.7%) > 오후 12시 ‘K-Popular with As One’(27.4%) > 오전 11시 ‘Hello, Korea’(17.7%) = 오후 4시 ‘Drivetime’(17.7%)순임.
- 영어 FM방송 청취자의 정규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은 68.9%로 외국인(69.9%)과 내국인(68.6%)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임. 방송 권역별로는 서울(71.9%)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64.0%), 광주(61.9%) 순으로 나타남.

- 청취자들에게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뉴스 정보로는(3개까지 중복 결과), ‘국내 사회/문화’(57.0%) > ‘세계 사회/문화’(48.7%) > ‘지역 소식’(37.8%) > ‘국내 정치’(31.5%) > ‘세계 경제’(30.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영어 FM방송 프로그램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영어 콘텐츠의 질’(39.5%)을 가장 중요시함.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21.1%) > ‘진행자 자질’(20.3%) > ‘한국에 대한 정보의 질’(16.1%)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교통정보’(2.2%)에 대한 지적은 낮은 편임.
- 영어 FM방송의 음악에 대한 만족도는 청취자의 70.4%(매우 만족함 21.4%, 어느 정도 만족함 49.0%)가 만족하고 있음. 한편, 만족하지 않는다(별로 만족하지 않음 2.5%, 전혀 만족하지 않음 1.9%)는 지적은 4.5%로 매우 적은 편임.
- 현재 영어 FM방송의 음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곡이 다양하지 않아서’(50.0%)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곡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않아서’(10.0%) > ‘대부분 영어권 음악이어서’(6.7%) > ‘청취자 참여가 어려워’(6.7%) 순임.
- 영어 FM방송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장르는 ‘영미권 팝’(57.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월드 뮤직’(19.3%) > ‘한국 가요’(11.8%) > ‘클래식’(8.5%) 순으로 나타남.
- 영어 FM방송 수신 상태에 대해서 청취자의 85.8%가 ‘안정적’이라고 답하였으며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14.2%로 적음.
- 청취자는 영어 FM방송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 ‘매우 긍정적’ 53.2%, ‘어느 정도 긍정적’ 35.0%로 대부분(88.2%)이 찬성하고 있음.
- 방송 내용별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지역 날씨 예보’, ‘문화 및 예술 정보 수집’이 ‘(매우+어느 정도)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8.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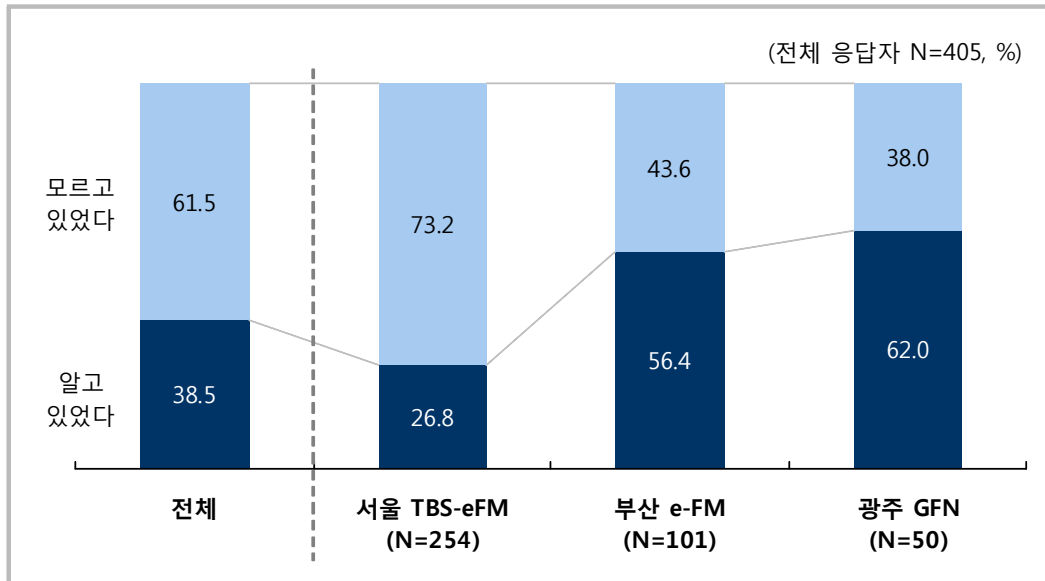
‘지역 시설 정보’와 ‘교통 정보’는 각각 55.5%, 53.4%가 ‘(매우+어느 정도)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전혀+별로)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 내용으로는 ‘교통 정보’가 12.4%로 네 가지 방송 내용 중 가장 많이 지적됨.

- 영어 FM방송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묻은 결과, 청취자의 77.0%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3.6%로 매우 적음.
- 영어 FM방송 청취 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청취자의 62.0%가 이전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으며 이전과 ‘변화 없다’ 36.8%,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1.2%로 나타남.
- 영어 FM방송에서 더 확대 개편되었으면 하는 장르로 청취자들은 ‘음악’(22.6%)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16.0%) > ‘시사’(13.6%) > ‘뉴스보도’(13.0%) > ‘경제 관련’(12.1%) > ‘한국어 교육’(9.1%) 순으로 조사됨.
- 영어 FM방송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에 대해 응답받은 결과, 외국인들은 ‘다양한 음악 선곡’(6.3%), ‘다양한 프로그램’(6.3%) 등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외에 ‘진행자 교체’(6.3%) ‘뉴스 확대’(3.4%), ‘지역 정보’(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내국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17.8%)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홍보 확대’(9.9%), ‘방송 전국 확대’(8.9%), ‘주파수 잘 안잡힘’(7.7%) 등 현재 영어 FM방송의 외부 환경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음.

III. 영어 FM방송 청취자 조사 결과 분석

- 서울,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405명을 대상으로 영어 FM방송 인지 여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38.5%가 인지하고 있음.

[그림 35] 영어 FM방송 인지도



- 영어 FM방송 인지자 156명에게 청취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 64.7%가 청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영어 FM방송 비청취자의 향후 영어 FM 청취 의향으로는 비청취자의 76.6%가 청취 의향이 ‘(어느정도+많이)있다’고 응답함. 청취할 의향이 ‘많이 있다’는 적극적인 청취자는 비청취자 4명 중 1명(24.7%) 정도임.
- 영어 FM방송 청취 비의향 이유로는 ‘평소에 라디오를 잘 듣지 않아서’가 62.7%로 가장 많아 라디오 자체에 니즈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영어 FM방송 도입 시 한국의 이미지를 더 좋게 느끼는데의 도움에 대해, 비청취자의 76.3%가 ‘(어느정도+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청취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62.0%)보다 더 높음.
- 한국 뉴스 주요 접촉 매체로는 ‘인터넷 포털 뉴스’가 78.3%(1+2순위)로 가장 많으며, 신문(35.9%), 케이블 TV뉴스(30.6%) 등이 뒤를 이음.
- 한국 거주 시 불편한 점으로 ‘언어 장벽’이 45.1%로 가장 많으며, 그 외 불편한 점이 10% 미만으로, ‘언어 장벽’에 대한 지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교통/ 교통 체증’(3.9%), ‘운전을 무섭게 한다’(2.0%), ‘한국말을 못하면 버스 타는 것이 복잡함’(1.0%) 등 교통 관련 지적이 다양하게 응답됨.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본방송 개시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각 라디오 가청지역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FM방송 청취 경험 여부 및 청취 행태, 청취자의 경우 방송 청취 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가 어떠한지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됨.

영어 FM방송 청취자를 대상으로 채널 및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해 향후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지난 1년 동안 영어 FM방송의 성과를 확인해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 점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조사 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거주 및 방문 외국인의 정보 수요 충족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한 영어 FM방송의 청취행태를 조사·분석하여 도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 대상 지역은 영어 FM방송이 도입된 서울, 부산, 광주였으며 조사대상은 각 지역 거주 영어 FM방송 청취자 및 일반 외국인으로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영문, 국문 설문지를 통해 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함.

영어 FM청취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간 청취 행태 및 청취 목적이 다르며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사항이 다를 것으로 가정,
두 집단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음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FM방송 인지도 및
청취율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며,
영어 FM방송의 향후 활성화 방안 탐색 가능



외국인, 내국인 대상으로 영어 FM 방송 향후 활성화 방안 탐색

2. 조사 설계

본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으며 인터넷 조사(표 1)와 면접조사(표 2)를 병행 실시함.

<표 1> 조사 설계 - 인터넷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영어 FM방송 청취자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조사 지역	서울		부산		광주	
표본 수	379명	63명	60명	54명	54명	59명
조사 방법	영어 FM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인터넷 조사					

<표 2> 조사 설계 - 면접 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등록외국인 중 ① 가청지역에 거주하고 ②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③ 영어 청취가 가능한 13세 이상 외국인		
조사 지역	서울	부산	광주
표본 수	254명	101명	5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3. 주요 조사 내용

<표 3> 주요 조사 내용

조사 내용	외국인 청취자	외국인 비청취자	외국인/ 내국인
① 청취행태			
1) 청취 빈도	○	X	○
2) 지난 주 청취 요일	○	X	○
3) 하루 평균 청취 시간	○	X	○
4) 주 청취 장소	○	X	○
5) 주 청취 기기	○	X	○
② 청취계기 및 목적			
1) 청취 계기	○	X	○
2) 청취 이유	○	X	○
3) 청취 권유 경험	○	X	○
4) 청취 권유 이유	○	X	○
③ 방송 평가			
1) 청취 프로그램/선호 프로그램	○	X	○
2) 정규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	○	X	○
3)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X	○
4)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는 뉴스 정보	○	X	○
5) 프로그램 중요 구성 요소	○	X	○
6) 음악 만족도	○	X	○
7) 음악 불만족 이유	○	X	○
8) 듣고 싶은 음악 장르	○	X	○
9) 수신 상태	○	X	○
④ 채널 도입 성과			
1) 전국 확대에 대한 의견	○	X	○
2)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X	○
3) 방송 내용 중 생활 도움이 된 정보	○	X	○
4) 영어 FM방송의 한국생활 도움 정도	○	X	○
5) 영어 FM방송 청취 후 한국 인식 변화	○	X	○
⑤ 제안 사항			
1) 확대 개편 희망 장르	○	X	○
2) 개선할 점	○	X	○
⑥ 영어 FM방송 인지 및 청취 경험			
1) 영어 FM방송 인지도	X	○	X
2) 영어 FM방송 청취 경험	X	○	X
⑦ 영어 FM방송에 대한 인식			
1) 영어 FM방송 청취 의향	X	○	X
2) 영어 FM방송 청취 비 의향 이유	X	○	X
3) 영어 FM방송 도입 시 한국 이미지 긍정 인식 도움 정도	X	○	X

4-1. 응답자 특성 - 영어 FM방송 청취자

○ 서울 TBS-eFM, 부산 Busan-eFM, 광주 GFN 방송 청취자이며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함.

<표 4> 영어 FM방송 청취자 응답자 특성 - 전체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699	100.0
구분	외국인	176	26.3
	내국인	493	73.7
성별	남자	341	51.0
	여자	328	49.0
연령별	29세 이하	309	46.2
	30대	279	41.7
	40세 이상	81	12.1
지역별	서울	442	66.1
	부산	114	17.0
	광주	113	16.9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45	6.7
	대제	131	19.6
	대졸 이상	493	73.7
직업별	농/임/어업	3	0.4
	자영업	26	3.9
	블루칼라	35	5.2
	화이트칼라	394	58.9
	가정주부	29	4.3
	학생	162	24.2
	무직/기타	20	3.0

<표 5> 영어 FM방송 청취자 응답자 특성 - 서울 TBS-eFM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442	100.0
구분	외국인	63	14.3
	내국인	379	85.7
성별	남자	239	54.1
	여자	203	45.9
연령별	29세 이하	190	43.0
	30대	194	43.9
	40세 이상	58	13.1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38	8.6
	대제	86	19.5
	대졸 이상	318	71.9
직업별	농/임/어업	3	0.7
	자영업	23	5.2
	블루칼라	23	5.2
	화이트칼라	253	57.2
	가정주부	18	4.1
	학생	104	23.5
	무직/기타	18	4.1

<표 6> 영어 FM방송 청취자 응답자 특성 - Busan eFM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114	100.0
구분	외국인	54	47.4
	내국인	60	52.6
성별	남자	55	48.2
	여자	59	51.8
연령별	29세 이하	62	54.4
	30대	38	33.3
	40세 이상	14	12.3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5	4.4
	대재	30	26.3
	대졸 이상	79	69.3
직업별	자영업	1	0.9
	블루칼라	6	5.3
	화이트칼라	64	56.1
	가정주부	3	2.6
	학생	39	34.2
	무직/기타	1	0.9

<표 7> 영어 FM방송 청취자 응답자 특성 - 광주 GFN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113	100.0
구분	외국인	59	52.2
	내국인	54	47.8
성별	남자	47	41.6
	여자	66	58.4
연령별	29세 이하	57	50.4
	30대	47	41.6
	40세 이상	9	8.0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2	1.8
	대재	15	13.3
	대졸 이상	96	85.0
직업별	자영업	2	1.8
	블루칼라	6	5.3
	화이트칼라	77	68.1
	가정주부	8	7.1
	학생	19	16.8
	무직/기타	1	0.9

4-2. 응답자 특성 - 일반 외국인

○ 일반 외국인 면접 조사는 영어 FM방송 청취 여부와 상관없이 영어 FM방송 가청 지역인 서울, 부산, 광주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영어 청취 가능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표 8> 일반 외국인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명)	%	구 분		사례수 (명)	%
전 체		405	100.0	거주 목적별	직장	270	66.7
성별	남자	201	49.6		개인 사업	2	0.5
	여자	204	50.4		유학	91	22.5
연령별	29세 이하	236	58.3		출장	5	1.2
	30대	106	26.2		여행	5	1.2
	40세 이상	63	15.6		결혼	12	3.0
지역별	서울	254	62.7		부모님과 거주	15	3.7
	부산	101	24.9		기타	5	1.2
	광주	50	12.3	거주 기간별	1년 미만	140	34.6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15	3.7		1-2년 미만	108	26.7
	대재	42	10.4		2-3년 미만	56	13.8
	대졸 이상	348	85.9		3년 이상	101	24.9
직업별	농/임/어업	1	0.2	국적별	북미권	227	56.0
	자영업	7	1.7		유럽권	58	14.3
	블루칼라	10	2.5		아시아권	80	19.8
	화이트칼라	273	67.4		오세아니아권	22	5.4
	가정주부	14	3.5		기타	18	5.4
	학생	98	24.2	한국어 능력별	상	21	5.2
	무직/기타	2	0.5		중	120	29.6
					하	200	49.4
					전혀 못함	64	15.8

II. 영어 FM방송 청취자 조사 결과 분석

1. 청취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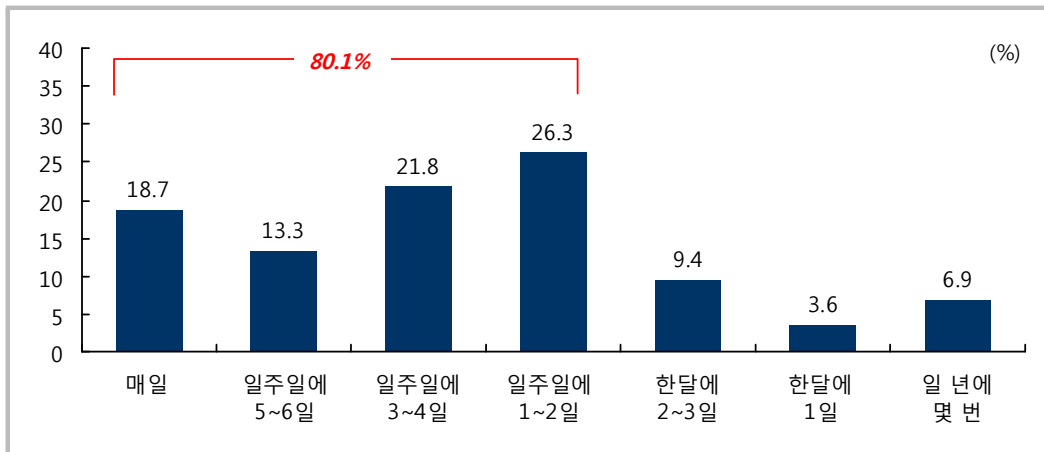
1) 청취 빈도

서울, 부산, 광주 영어 FM방송 청취자 669명에게 평소 영어 FM방송 청취 빈도를 묻은 결과, ‘일주일에 1~2일’(26.3%)이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3~4일’ (21.8%), ‘일주일에 5~6일’(13.3%), ‘매일’(18.7%) 등 일주일에 1일 이상 청취자가 80.1%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일 이상 영어 FM방송청취는 내국인(82.0%)이 외국인(75.0%) 대비 많았으며 방송 권역별로는 서울(82.8%)이 부산(77.2%)이나 광주(72.6%)대비 높게 나타남.

매일 영어 FM방송 청취는 18.7%로 내국인(20.1%)이 외국인(14.8%)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 청취 빈도



<표 9> 청취 빈도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매일	일주일 에 5-6일	일주일 에 3-4일	일주일 에 1-2일	한달 에 2-3일	한달 에 1일	일 년 에 몇 번
전 체		18.7	13.3	21.8	26.3	9.4	3.6	6.9
구분	외국인	14.8	15.3	23.9	21.0	7.4	8.5	9.1
	내국인	20.1	12.6	21.1	28.2	10.1	1.8	6.1
지역별	서울	19.5	14.0	21.0	28.3	9.5	2.0	5.7
	부산	16.7	8.8	26.3	25.4	13.2	4.4	5.3
	광주	17.7	15.0	20.4	19.5	5.3	8.8	13.3

2) 지난 주 청취 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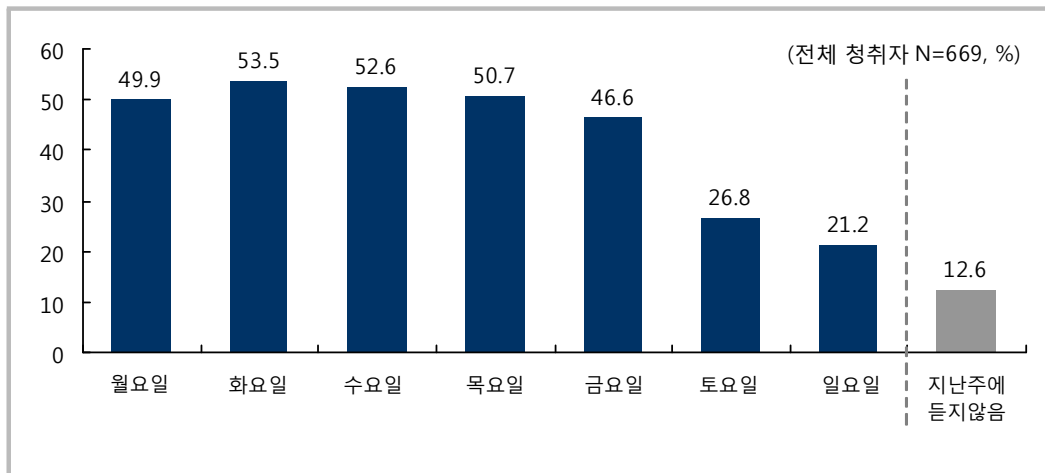
청취자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영어 FM방송 청취 요일을 묻은 결과(복수 응답), 평일 청취가 주말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남. 평일(월~금) 청취율은 50% 내외인 반면, 주말(토~일)은 20%대로 차이가 큼.

평일 청취는 화요일(53.5%)과 수요일(52.6%)에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음.

목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외국인 대비 요일별 청취율이 높음. 방송 권역별로 서울은 ‘화요일’(55.0%), ‘수요일’(55.2%), 부산은 ‘목요일’(52.6%), 광주는 ‘월요일’(51.3%) 청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말 청취율은 광주가 서울, 부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2] 지난 주 청취 요일



<표 10> 지난 주 청취 요일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난주 에 듣지 않음
전 체		49.9	53.5	52.6	50.7	46.6	26.8	21.2	12.6
구분	외국인	46.0	49.4	50.6	51.7	44.3	22.2	22.7	9.7
	내국인	51.3	55.0	53.3	50.3	47.5	28.4	20.7	13.6
지역별	서울	50.5	55.0	55.2	51.1	48.0	28.1	19.5	12.2
	부산	46.5	50.9	48.2	52.6	41.2	18.4	22.8	11.4
	광주	51.3	50.4	46.9	46.9	46.9	30.1	26.5	15.0

3) 하루 평균 청취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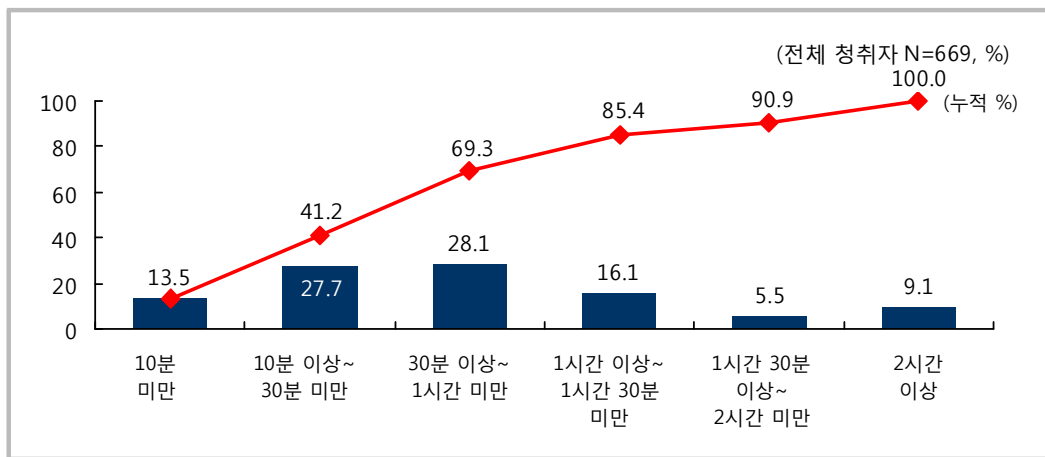
영어 FM방송 청취 시,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청취하는 지를 알아본 결과,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상 청취’는 30.7%, ‘1시간 미

만 청취'는 69.3%로 나타남.

하루 평균 '10분 미만 청취'는 내국인 10.5%, 외국인 21.6%로 10%p 이상 차이를 보여 외국인이 내국인 대비 짧은 시간 청취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1시간 이상 청취'는 외국인 28.4%, 내국인 31.6%로 내국인이 3.2%p 많은 가운데, 방송 권역별로는 부산(36.8%)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30.1%), 광주(27.4%)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하루 평균 청취 시간



<표 11> 하루 평균 청취 시간 - 응답자 특성별

구 분		10분 미만	10분 이상~30분 미만	30분 이상~1시간 미만	1시간 이상~1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전 체		13.5	27.7	28.1	16.1	5.5	9.1
구분	외국인	21.6	21.6	28.4	14.8	5.1	8.5
	내국인	10.5	29.8	28.0	16.6	5.7	9.3
지역별	서울	10.6	31.9	27.4	16.5	5.7	7.9
	부산	14.0	21.1	28.1	18.4	6.1	12.3
	광주	23.9	17.7	31.0	12.4	4.4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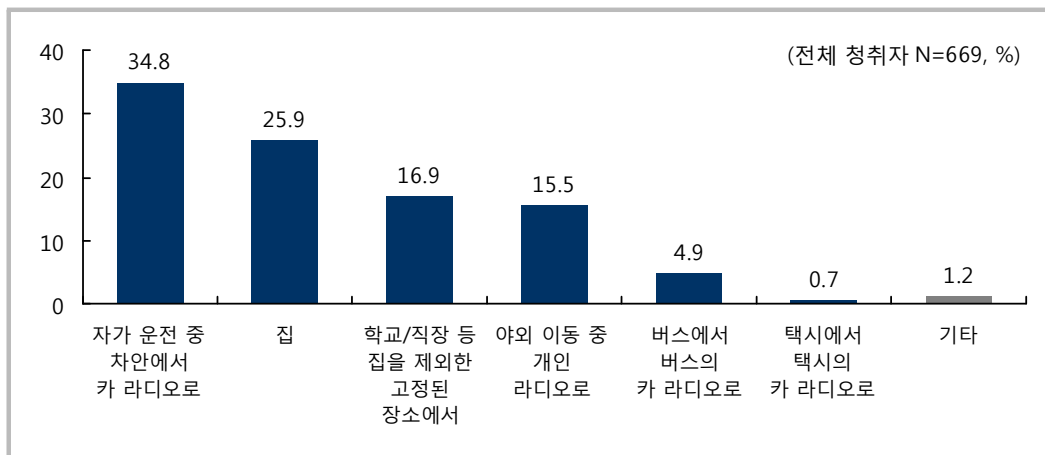
4) 주 청취 장소

영어 FM방송 주 청취 장소로 전체 청취자의 34.8%가 ‘자가 운전 중 차안에서 카라디오’로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집’(25.9%) > ‘학교/직장 등 집을 제외한 고정된 장소’(16.9%) > ‘야외 이동 중 개인 라디오’(15.5%) > ‘버스에서 버스의 카라디오’(4.9%) 순임.

외국인 청취자의 10명 중 4명(42.0%)은 ‘자가 운전 중 차안에서 카라디오’로 청취하고 있음.

내국인의 청취 장소는 외국인 대비 상대적으로 분산됨.

[그림 4] 주 청취 장소



<표 12> 주 청취 장소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자가 운전 중 차안에서 카 라디오로	집	학교/ 직장 등 집을 제외한 고정된 장소에서	야외 이동 중 개인 라디오로	버스에서 버스의 카 라디오로	택시에서 택시의 카 라디오로	기타
전 체		34.8	25.9	16.9	15.5	4.9	0.7	1.2
구분	외국인	42.0	30.1	13.1	5.7	4.5	1.1	3.4
	내국인	32.3	24.3	18.3	19.1	5.1	0.6	0.4
지역별	서울	34.4	24.9	14.7	18.8	6.3	0.7	0.2
	부산	28.1	26.3	29.8	9.6	3.5	-	2.6
	광주	43.4	29.2	12.4	8.8	0.9	1.8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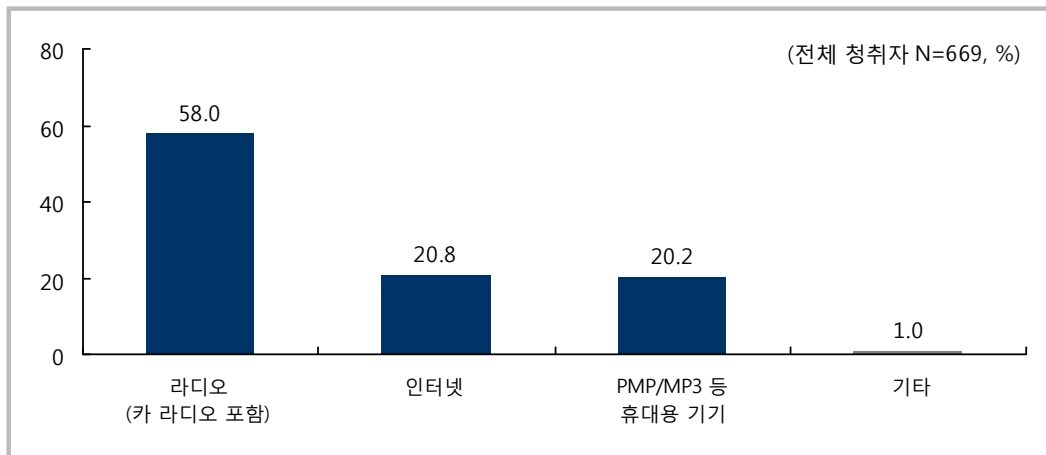
5) 주 청취 기기

영어 FM방송을 주로 어느 기기를 통해 청취하는 지 알아본 결과, ‘카라디오 포함 라디오’(58.0%)를 통한 청취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20.8%)과 ‘PMP/MP3 등 휴대용 기기’(20.2%)가 비슷한 비율로 응답됨.

상대적으로 자가 운전 중 차안에서 카라디오로 청취하는 비율이 높았던 외국인의 경우 3명 중 2명(67.0%)이 ‘라디오’가 주 청취 기기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인터넷’(25.0%)을 통한 청취가 많이 이뤄지고 있음

내국인 역시 ‘라디오’(54.8%)가 가장 많았으며 ‘PMP/MP3 등 휴대용 기기’ (24.5%)를 통한 청취 역시 많은 편임.

[그림 5] 주 청취 기기



<표 13> 주 청취 기기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라디오 (카 라디오 포함)	인터넷	PMP/MP3 등 휴대용 기기	기타
전 체		58.0	20.8	20.2	1.0
구분	외국인	67.0	25.0	8.0	-
	내국인	54.8	19.3	24.5	1.4
지역별	서울	56.1	17.9	24.4	1.6
	부산	56.1	29.8	14.0	-
	광주	67.3	23.0	9.7	-

2. 청취 계기 및 이유

1) 청취 계기

영어 FM방송 청취자들은 ‘주위 사람의 권유’(32.7%)나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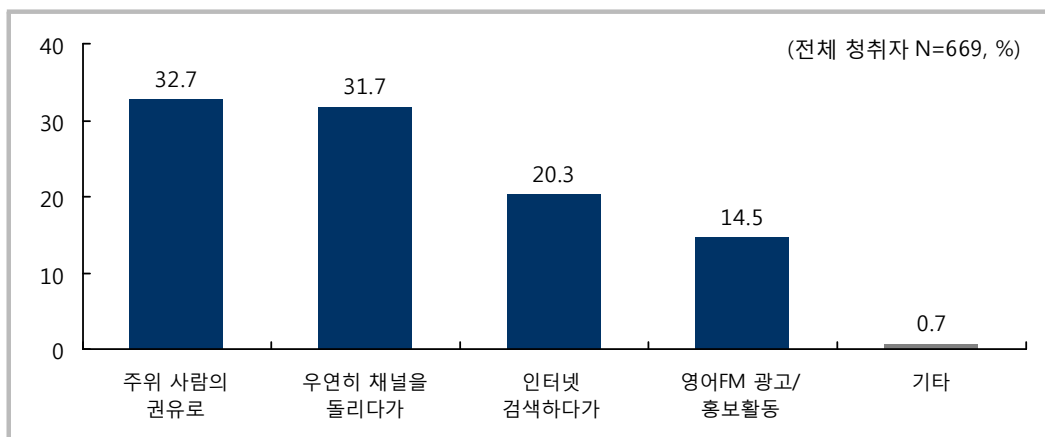
가’(31.7%) 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인터넷을 검색’(20.3%)하거나 ‘영어 FM방송 광고/홍보활동’(14.5%)을 보고 청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외국인의 경우 ‘주위 사람의 권유’를 통한 청취가 46.6%로 높아 친구나 선배, 직장 동료와 같은 주위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최초 청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내국인의 경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최초 청취하게 된 경우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청취하게 된 경우가 24.1%로 외국인(9.7%)보다 높은 편임.

‘영어 FM방송 광고/홍보활동’에 의한 청취가 광주 지역에서 24.8%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6] 청취 계기



<표 14> 청취 계기 - 응답자 특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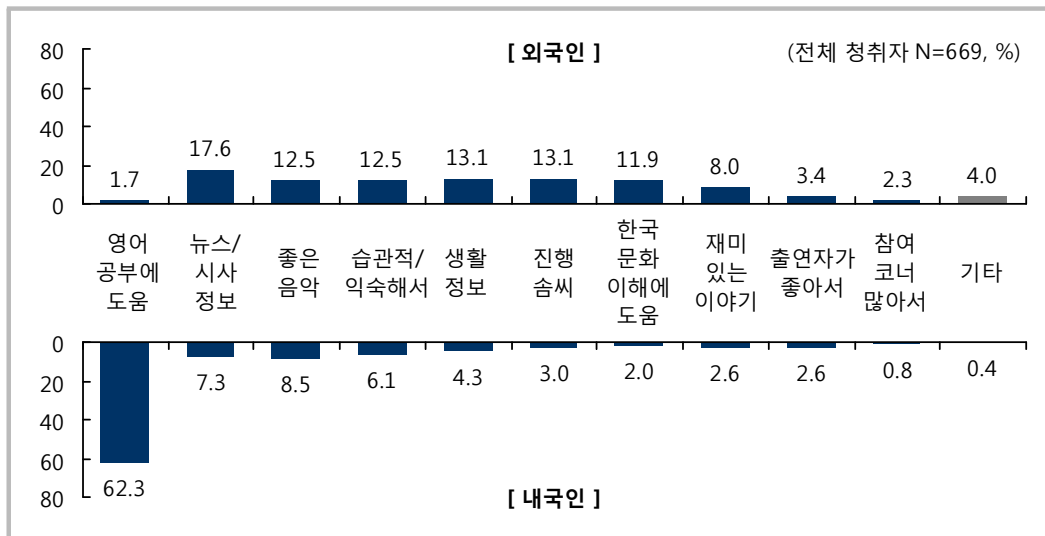
구 분		주위 사람의 권유로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영어 FM방송 광고/홍보활동	기타
전 체		32.7	31.7	20.3	14.5	0.7
구분	외국인	46.6	26.7	9.7	15.3	1.7
	내국인	27.8	33.5	24.1	14.2	0.4
지역별	서울	22.9	38.2	26.7	11.8	0.5
	부산	57.9	19.3	6.1	14.9	1.8
	광주	46.0	18.6	9.7	24.8	0.9

2) 청취 이유

영어 FM방송을 청취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국인 청취자는 ‘뉴스/시사 정보’(17.6%) 때문이란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정보’(13.1%) = ‘진행 숨씨’(13.1%) > ‘좋은 음악’(12.5%) = ‘습관적/익숙해서’(12.5%) 등 순으로 응답됨. 한편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어 듣는다고도 11.9%로 나타나 외국인들의 청취 이유는 다양하게 분산됨.

내국인 청취자는 상당수(62.3%)가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취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좋은 음악’(8.5%) > ‘뉴스/시사 정보’(7.3%) > ‘습관적/익숙해서’(6.1%)순으로 응답됨.

[그림 7] 청취 이유



<표 15> 청취 이유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영어 공부에 도움	뉴스/ 시사 정보	좋은 음악	습관적/ 익숙해서	생활 정보	진행 솜씨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	재미 있는 이야기	출연자가 좋아서	참여 코너 많아서	기타
전 체		46.3	10.0	9.6	7.8	6.6	5.7	4.6	4.0	2.8	1.2	1.3
구분	외국인	1.7	17.6	12.5	12.5	13.1	13.1	11.9	8.0	3.4	2.3	4.0
	내국인	62.3	7.3	8.5	6.1	4.3	3.0	2.0	2.6	2.6	0.8	0.4
지역별	서울	52.5	10.0	10.6	5.4	6.6	4.8	4.1	1.8	2.7	1.6	-
	부산	32.5	11.4	2.6	13.2	6.1	8.8	7.0	11.4	4.4	0.9	1.8
	광주	36.3	8.8	12.4	11.5	7.1	6.2	4.4	5.3	1.8	-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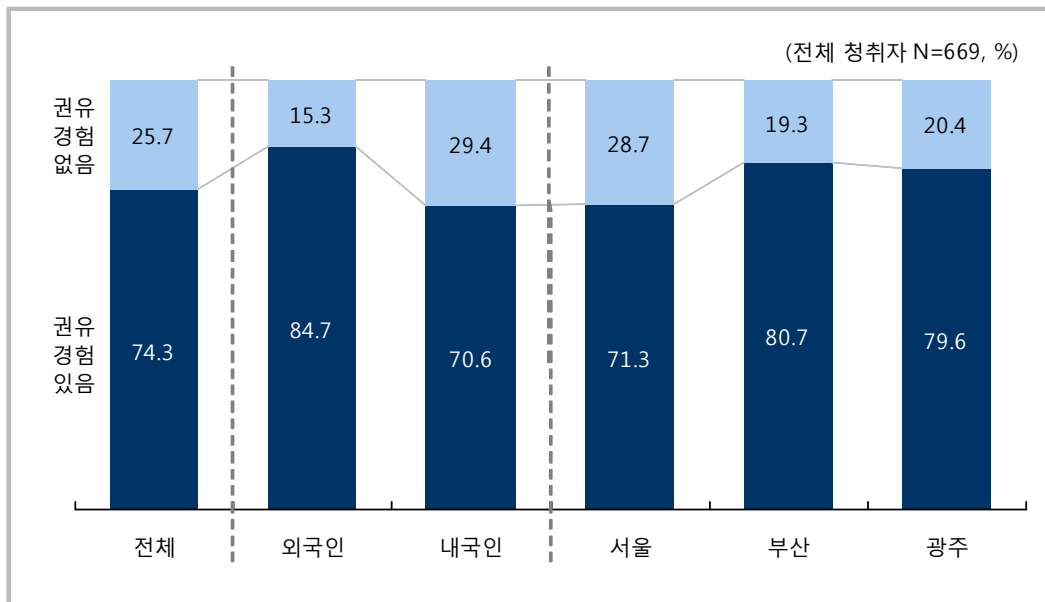
3) 청취 권유 경험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 FM방송 청취를 권유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해 전체 청취자의 74.3%가 ‘있다’고 응답함.

외국인의 경우 84.7%가 주변 사람들에게 청취 권유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내국인(70.6%) 대비 14.1%p 높게 나타남.

청취 권유 경험은 청취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29세 이하 70.2% → 30대 76.3% → 40세 이상 82.7%)

[그림 8] 청취 권유 경험



4) 청취 권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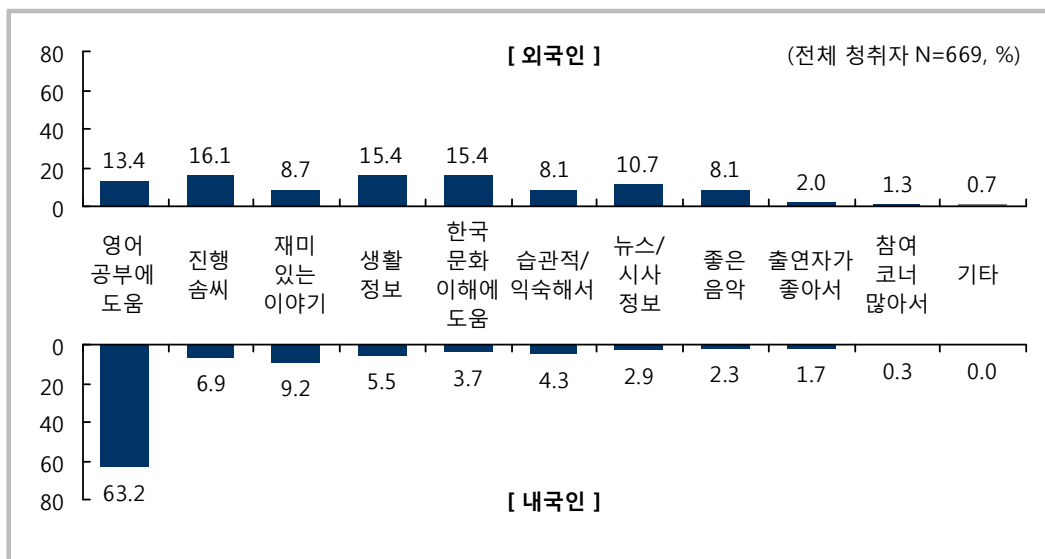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 FM방송 청취를 권유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앞서 응답한

본인 청취 이유와 비슷한 응답 경향을 나타냄.

외국인 청취자의 경우 ‘진행 숨씨’(16.1%), ‘생활 정보’(15.4%)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15.4%), ‘영어공부에 도움’(13.4%) ‘뉴스/시사 정보’(10.7%) 등의 여러 이유로 영어 FM방송 청취를 권유하고 있음.

내국인 청취자의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취를 권유 한다는 지적이 63.2%로 가장 많음.

[그림 9] 청취 권유 이유



<표 16> 청취 권유 이유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영어 공부 에 도움	진행 숨쉴	재미 있는 이야 기	생활 정보	한국 문화 이해 에 도움	습관 적/ 익숙 해서	뉴스/ 시사 정보	좋은 음악	출연 자가 좋아 서	참여 코너 많아 서	기타
전 체		48.3	9.7	9.1	8.5	7.2	5.4	5.2	4.0	1.8	0.6	0.2
구분	외국인	13.4	16.1	8.7	15.4	15.4	8.1	10.7	8.1	2.0	1.3	0.7
	내국인	63.2	6.9	9.2	5.5	3.7	4.3	2.9	2.3	1.7	0.3	-
지역별	서울	49.2	8.3	10.5	7.6	8.3	4.8	4.8	3.8	2.5	-	-
	부산	38.0	18.5	8.7	12.0	3.3	8.7	5.4	3.3	-	-	-
	광주	55.6	5.6	4.4	7.8	7.8	4.4	6.7	5.6	1.1	0.8	0.3

3. 방송 평가

1-1-1) 청취 프로그램 - 서울 TBS-eFM

서울 TBS-eFM청취자(N=442)를 대상으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한 번이라도 청취한 프로그램을 모두 알아본 결과, 오전 7시 출근 시간대에 Hans Schattle이 진행하는 ‘This Morning’ 청취 경험자가 가장 많음.

오전 9시대부터 오후 8시대까지 30% 내외의 청취 경험률을 보인 가운데, 오후 8시 ‘M-Town’의 경우 37.3%로 오후 시간대 프로그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자정 이후 새벽 시간대 프로그램 청취 경험률은 10% 내외로 나타남.

주말 프로그램은 10%대의 청취 경험률을 보여 평일 대비 낮음.

주말 프로그램 중에서는 ‘Weekly Review’가 18.3%로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음.

[그림 10] 청취 프로그램 - 서울 TBS-eFM

(%)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12:00 AM	Music Planet [J]	19.7		
2:00 AM	Jazz Hour [Forest Muther]	10.0		
3:00 AM	Rough around the Edges [Stuart Reece]	8.6		
5:00 AM	Out of Bed with Travis [Travis]	11.8		
7:00 AM	This Morning [Hans Schattle]	43.7	The Classical Collection [Choi Dahye]	12.2
9:00 AM	Kickstart [Erica Lee]	30.8		
11:00 AM	Soul of Asia [Sid Kim]	27.4	Weekly Review [Kim Byoung Joo]	18.3
12:00 PM	K-Popular with As One [As One]	30.5		
2:00 PM	The Steve Hatherly Show [Steve Hatherly]	31.7		
4:00 PM	Drivetime [Sam & Annabelle]	35.1		
6:00 PM	Evening Show [Ahn Junghyun]	34.8	Weekend Chart [James Atkinson]	12.4
8:00 PM	M-Town [Sue Park]	37.3		
10:00 PM	On the Pulse [Robert Joe]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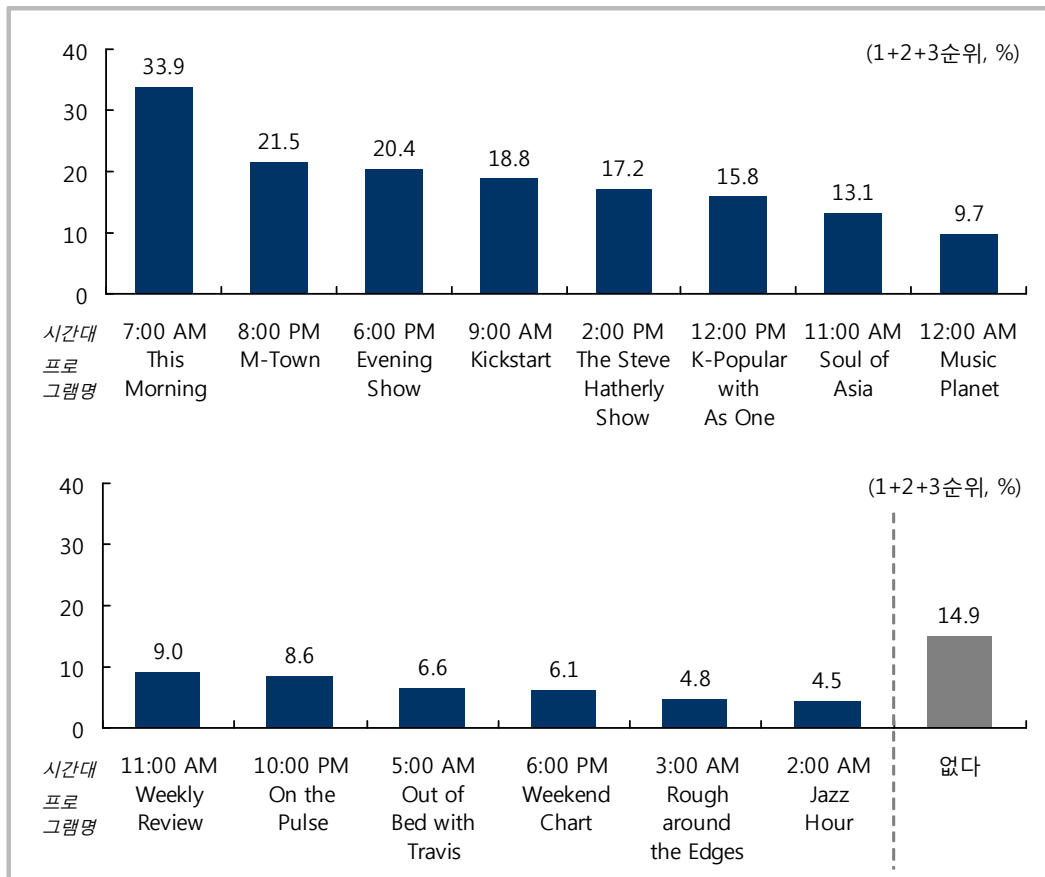
1-1-2) 선호 프로그램 - 서울 TBS-eFM

서울 TBS-eFM 청취자(N=442)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청취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즐겨 듣는 프로그램을 3개까지 중복으로 물은 결과,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This Morning’(33.9%)이 선호도 평가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오후 8시 ‘M-Town’(21.5%) > 오후 6시 ‘Evening Show’(20.4%) > 오전 9시 ‘Kickstart’(18.8%) > 오후 2시 ‘The Steve Hatherly Show’(17.2%)순임.

상위 3위 프로그램은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 방송 프로그램이며 장르는 1, 3위는 ‘시사’, 2위는 ‘음악’임.

한편 청취자 중 선호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은 14.9%로 조사됨.

[그림 11] 선호 프로그램 - 서울 TBS-eFM



1-2-1) 청취 프로그램 - Busan-eFM

Busan-eFM 청취자(N=114)를 대상으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 경험률을 알아본 결과, 서울 TBS-eFM의 ‘This morning’과 동일한 시간대인 오전 7시

출근 시간대 ‘Morning wave in Busan’ 청취 경험률이 49.1%로 가장 높음.

오후 3시대 ‘See the World’와 오후 6시대 ‘Inside Out Busan’의 청취 경험률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오전 6시대 ‘It Classic’을 제외하고는 10%대의 청취 경험률을 보임.

[그림 12] 청취 프로그램 - Busan-eFM

(%)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12:00 AM	Midnight Café	8.8		
2:00 AM	Jazz Hour [Forest Muther]	4.4		
3:00 AM	Rough around the Edges [Stuart Reece]	3.5		
5:00 AM	Scent of Tradition [Kali Kim]	1.8		
6:00 AM	Morning Breeze	4.4	It Classic [Caelyn Shin]	4.4
7:00 AM	Morning wave in Busan [Petra R. Jung]	49.1	B-Café [Katherine Bang]	11.4
9:00 AM	Travel bug [Robert Holley, Lee Yei-rang]	21.9	Weekly Review [Kim Byoung Joo]	14.0
10:00 AM	Travel bug [Robert Holley, Lee Yei-rang]	29.8	Funfun Stage [Chris K Bacon, Tina Park]	13.2
11:00 AM	World Music Station [Philippe Cho]	10.5		
12:00 PM	Mid-day Break [ISAK]	12.3		
2:00 PM	K-POP Zone [Kim Young]	21.1	Sweet Dates [Rhiannon Shepherd, Simon MacAvoy]	14.9
3:00 PM	See the World [Sean O'Malley]	34.2	Sweet Dates [Rhiannon Shepherd, Simon MacAvoy]	14.0
4:00 PM	Drivetime [Sam & Annabelle]	16.7		
6:00 PM	Inside Out Busan [Brandon Na]	31.6	Weekend Chart [James Atkinson]	11.4
8:00 PM	Evening Groove [Dorothy Nam]	15.8	Let's talk Busan [Cindy Park]	15.8
10:00 PM	Midnight rider [Chad Kirton]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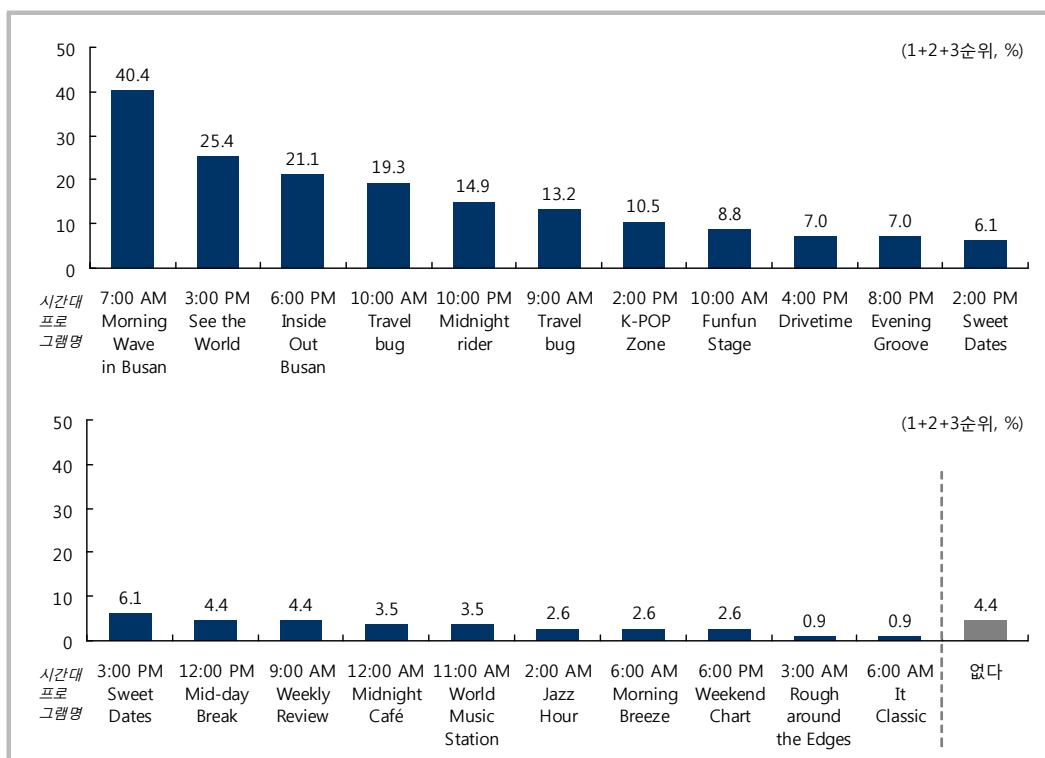
1-2-2) 선호 프로그램 - Busan-eFM

Busan-eFM 청취자(N=114)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청취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즐겨 듣는 프로그램을 3개까지 중복으로 물은 결과,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Morning wave in Busan’이 선호도 평가에서도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오후 3시 ‘See the World’(25.4%) > 오후 6시 ‘Inside out Busan’(21.1%) > 오전 10시 ‘Travel bug’(19.3%) > 오후 10시 ‘Midnight rider’(14.9%) 순임.

선호도 1위 ‘Morning wave in Busan’은 시사, 2-5위는 교양 프로그램임.

한편 청취자 중 선호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은 4.4%로 서울 청취자(14.9%) 대비 적음.

[그림 13] 선호 프로그램 - Busan-eFM



1-3-1) 청취 프로그램 - 광주 GFN

광주 GFN 청취자(N=113)를 대상으로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 경험률을 알아본 결과, 오후 6시 'City of Light'가 67.3%로 가장 높아 서울TBS-eFM과 Busan-eFM이 출근 시간대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청취 경험률을 보인 것과 차이를 보임.

오후 8:00 'M-Town'(50.4%)과 오후 12시 'K-Popular with As One'(48.7%) 역시 50% 내외의 높은 청취 경험률을 보임

GFN의 경우 오전 11~12시, 오후 6~8시 대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 경험률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TBS-eFM과 Busan-eFM 대비 프로그램별 청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주말 프로그램의 경우 오후 12시 'Sunday Bubble'(31.9%)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4] 청취 프로그램 - 광주 GF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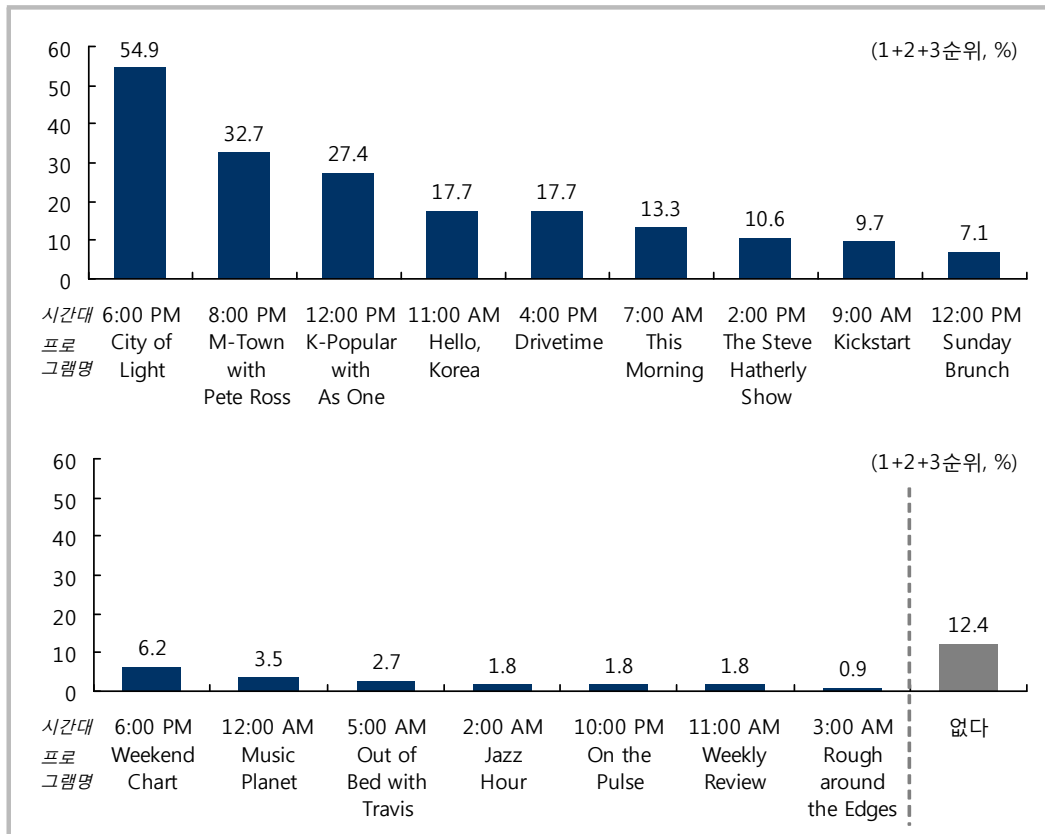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일)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12:00 AM	Music Planet [J]	15.9		
2:00 AM	Jazz Hour [Forest Muther]	4.4		
3:00 AM	Rough around the Edges [Stuart Reece]	5.3		
5:00 AM	Out of Bed with Travis [Travis]	8.0		
7:00 AM	This Morning [Hans Schattle]	25.7	The Classical Collection [Choi Dahye]	10.6
9:00 AM	Kickstart [Erica Lee]	23.0		
11:00 AM	Hello, Korea [Charlene Jones]	34.5	Saturday Brunch [Hwang Young Jin]	26.5
			Weekly Review [Kim Byoung Joo]	9.7
12:00 PM	K-Popular with As One [As One]	48.7	Sunday Bubble [Nathaniel H. Kent]	31.9
2:00 PM	The Steve Hatherly Show [Steve Hatherly]	27.4		
4:00 PM	Drivetime [Sam & Annabelle]	29.2		
6:00 PM	City of Light [Michael Simning]	67.3	Weekend Chart [James Atkinson]	16.8
8:00 PM	M-Town with Pete Ross	50.4		
10:00 PM	On the Pulse [Robert Joe]	11.5		

1-3-2) 선호 프로그램 - 광주 GFN

광주 GFN 청취자(N=113)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청취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즐겨 듣는 프로그램을 3개까지 중복으로 물은 결과,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오후 6시 ‘City of Light’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다음으로 오후 8시 ‘M-Town’(32.7%) > 오후 12시 ‘K-Popular with As One’(27.4%) > 오전 11시 ‘Hello, Korea’(17.7%) = 오후 4시 ‘Drivetime’(17.7%)순임.

선호도 1위 ‘City of Light’은 시사, 2위와 3위는 음악 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됨.
 한편 청취자 중 선호 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은 12.4%임.

[그림 15] 선호 프로그램 - 광주 G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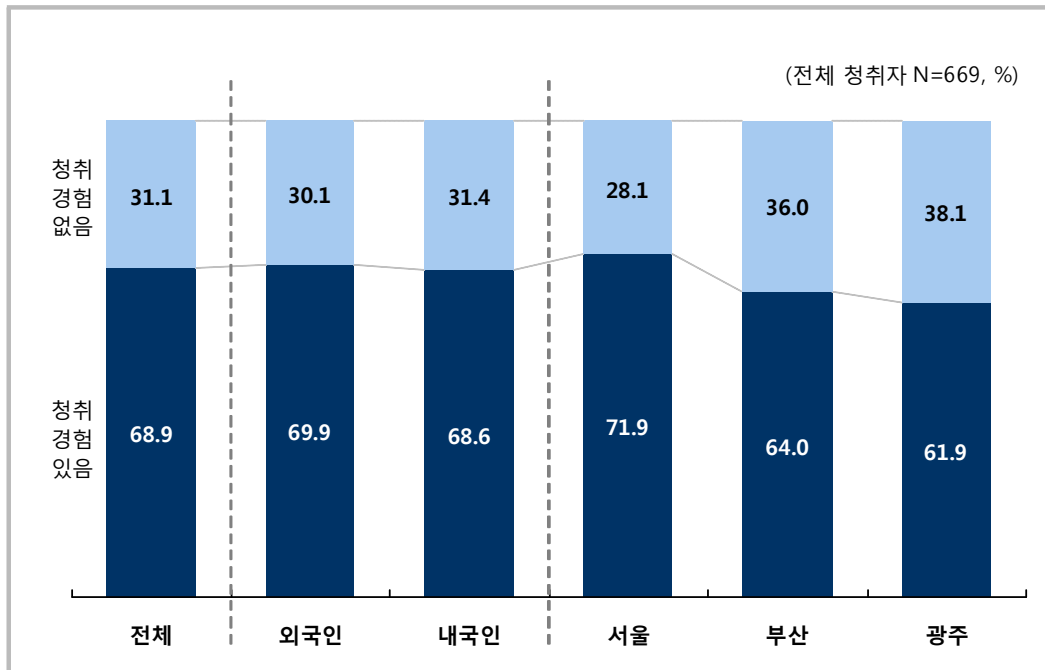
2) 정규 뉴스 프로그램 청취

영어 FM방송 청취자의 정규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은 68.9%로 외국인(69.9%)과 내국인(68.6%)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임.

방송 권역별로는 서울(71.9%)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64.0%), 광주(61.9%) 순으로 나타남.

특히 외국인의 경우 거주 기간이 길수록 뉴스 청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1년 미만 62.5% → 1~2년 미만 62.2% → 2~3년 미만 68.8% → 3년 이상 75.9%)

[그림 16] 정규 뉴스 프로그램 청취



3-1)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서울 TBS-eFM

서울 TBS-eFM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자(N=318)를 대상으로 주중 한번이라도 청취해 본 뉴스 프로그램을 모두 알아본 결과,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BBS News’(39.9%)가 가장 높게 나타남.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률은 주로 오전 시간대가 오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정오~오후 3시대가 타 시간 대비 비교적 낮게 조사됨.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8시 프로그램의 경우 20% 내외의 청취 경험률을 보임.

[그림 17]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서울 TBS-eFM

(%)

구분	주중(월~금)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7:00 AM	News	24.8
8:00 AM	BBS News	39.9
9:00 AM	News	32.4
11:00 AM	BBS News	27.7
11:30 AM	Past and Present	15.7
12:00 PM	News	18.2
2:00 PM	News	18.6
3:00 PM	News	15.1
4:00 PM	BBS News	24.8
5:00 PM	What's happening in Seoul	20.8
6:00 PM	News	18.6
7:00 PM	News	20.1
8:00 PM	BBS News	21.4
9:00 PM	News	10.4

3-2)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Busan-eFM

Busan-eFM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자(N=73)를 대상으로 청취 경험 뉴스 프로그램을 묻은 결과, 오전 9시와 10시대, 저녁 6시대 뉴스 청취가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청취 경험이 낮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오후 1시, 2시, 4시, 밤 9시 뉴

스로 10% 전후로 조사됨.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률은 주로 오전 시간대가 오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뉴스 청취가 타 시간대보다 많은 것이 특징임.

[그림 18]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Busan-eFM

(%)

구분	주중(월~금)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6:00 AM	News	 11.0
9:00 AM	News	 32.9
10:00 AM	News	 32.9
11:00 AM	News	 23.3
12:00 PM	News	 28.8
13:00 PM	News	 9.6
14:00 PM	News	 12.3
15:00 PM	News	 20.5
16:00 PM	BBC News	 8.2
17:00 PM	Weekly Update	 15.1
18:00 PM	News-Main	 32.9
20:00 PM	News	 15.1
21:00 PM	News	 8.2

3-3)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광주 GFN

광주 GFN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자(N=70)를 대상으로 한번이라도 청취해 본

뉴스 프로그램을 알아본 결과,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저녁 6시 'City of Light'의 영향인 듯 동 시간대 뉴스가 61.4%로 가장 높은 청취 경험률을 보임.

다음으로 오후 12:10 뉴스(42.9%)가 그 뒤를 이었으며 타 시간대는 10~20%대로 청취 경험 상위 2개 뉴스와 차이가 큼.

낮 시간대 뉴스의 경우 20%대의 비교적 고른 청취 경험률을 보임.

[그림 19] 주중 청취 정규 뉴스 프로그램 - 광주 GFN

(%)

구분	주중(월~금)	
	프로그램명	청취 경험률
7:05 AM	News	 18.6
8:05 AM	BBS News	 30.0
9:05 AM	News	 24.3
11:05 AM	BBS News	 20.0
12:10 PM	News	 42.9
2:05 PM	News	 21.4
3:05 PM	News	 21.4
4:05 PM	BBS News	 25.7
5:05 PM	What's happening in Seoul	 21.4
6:10 PM	News	 61.4
7:05 PM	News	 21.4
8:05 PM	BBS News	 14.3
9:05 PM	News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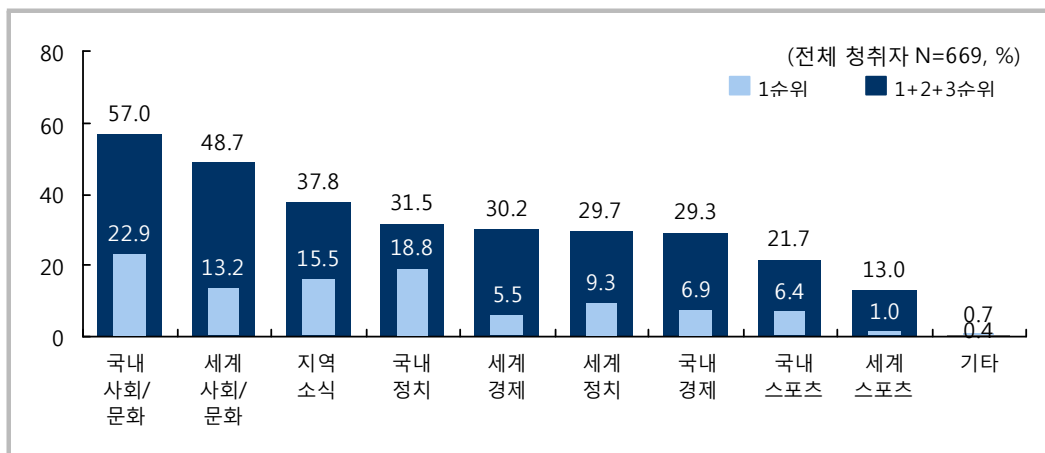
4)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 싶은 뉴스 정보

청취자들에게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뉴스 정보가 무엇인지 3개까지 알아본 결과(중복 결과), ‘국내 사회/문화’(57.0%) > ‘세계 사회/문화’(48.7%) > ‘지역 소식’(37.8%) > ‘국내 정치’(31.5%) > ‘세계 경제’(30.2%) 등의 순으로 조사됨.

영어 FM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뉴스는 크게 ‘사회/문화’ > ‘지역 소식’ > ‘정치’ = ‘경제’ > ‘스포츠’ 순임.

외국인, 내국인 모두 국내의 사회/문화에 대한 정보 획득 니즈가 큰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 ‘지역 소식’ 및 ‘국내 정치’, 내국인은 ‘세계 사회문화’ 및 ‘세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큼.

[그림 20]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 싶은 뉴스 정보



<표 17>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 싶은 뉴스 정보 - 응답자 특성별

(1+2+3순위 기준, %)

구 분		국내 사회/ 문화	세계 사회/ 문화	지역 소식	국내 정치	세계 경제	세계 정치	국내 경제	국내 스포츠	세계 스포츠	기타
전 체		57.0	48.7	37.8	31.5	30.2	29.7	29.3	21.7	13.0	0.7
구분	외국인	57.4	40.9	56.8	37.5	20.5	22.7	29.0	21.0	10.8	2.3
	내국인	56.8	51.5	31.0	29.4	33.7	32.3	29.4	21.9	13.8	0.2
지역별	서울	55.0	49.3	25.6	32.6	36.4	31.7	34.2	22.2	12.9	0.2
	부산	55.3	46.5	57.9	28.9	17.5	28.1	21.1	23.7	18.4	2.6
	광주	66.4	48.7	65.5	30.1	18.6	23.9	18.6	17.7	8.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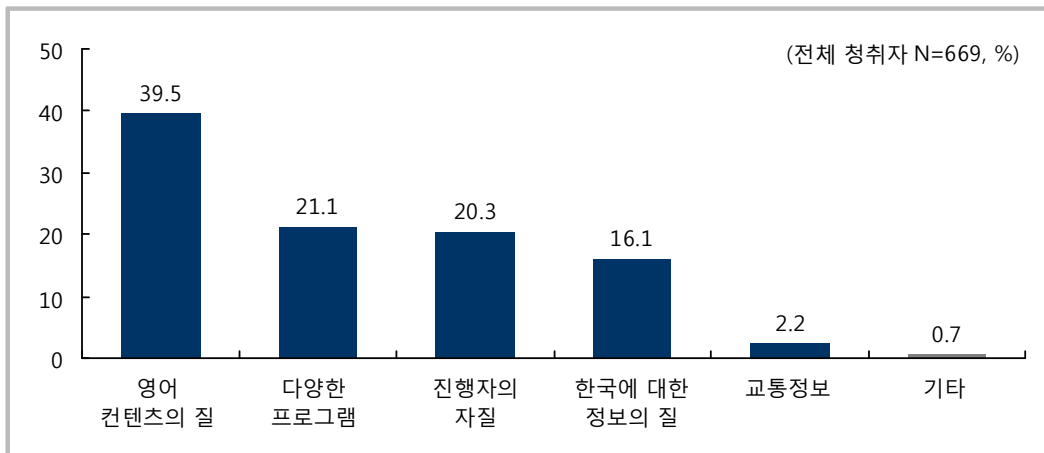
5) 프로그램 중요 구성 요소

영어 FM방송 프로그램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청취자에게 물은 결과, ‘영어 콘텐츠의 질’(39.5%)을 가장 중요시함.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21.1%) > ‘진행자 자질’(20.3%) > ‘한국에 대한 정보의 질’(16.1%) 순으로 응답 되었으며, ‘교통정보’(2.2%)에 대한 지적은 낮은 편임.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대한 정보의 질’(29.0%)을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24.4%) > ‘영어 콘텐츠의 질’(22.7%) > ‘진행자 자질’(16.5%)순임.

내국인의 경우 특히 ‘영어 콘텐츠의 질’(45.4%)을 다른 구성 요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영어 FM방송을 청취하는 것과 평가 맥락이 같음.

[그림 21] 프로그램 중요 구성 요소



<표 18> 프로그램 중요 구성 요소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영어 콘텐츠의 질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자의 자질	한국에 대한 정보의 질	교통정보	기타
전 체		39.5	21.1	20.3	16.1	2.2	0.7
구분	외국인	22.7	24.4	16.5	29.0	4.5	2.8
	내국인	45.4	19.9	21.7	11.6	1.4	-
지역별	서울	45.6	18.8	16.2	15.9	3.2	0.3
	부산	34.1	25.1	22.2	15.8	1.4	1.4
	광주	34.6	16.0	29.6	18.5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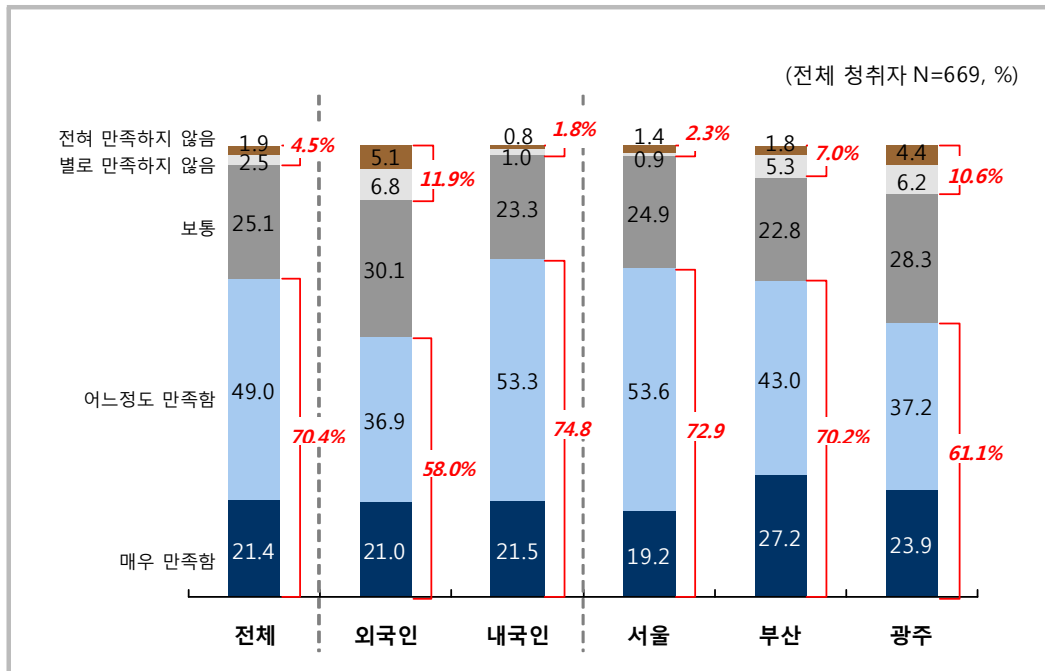
6) 음악 만족도

영어 FM방송의 음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청취자의 70.4%(매우 만족함 21.4%, 어느 정도 만족함 49.0%)가 만족하고 있음. 한편, 만족하지 않는다(별로 만족하지 않음 2.5%, 전혀 만족하지 않음 1.9%)는 지적은 4.5%로 매우 적은 편임.

음악 만족도는 외국인(58.0%)에서 내국인(74.8%) 보다 낮게 나타남. 방송 권역별로는 광주가 서울이나 부산 대비 만족도가 소폭 낮게 나타남.

음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지적은 부산(27.2%)에서 타 지역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22] 음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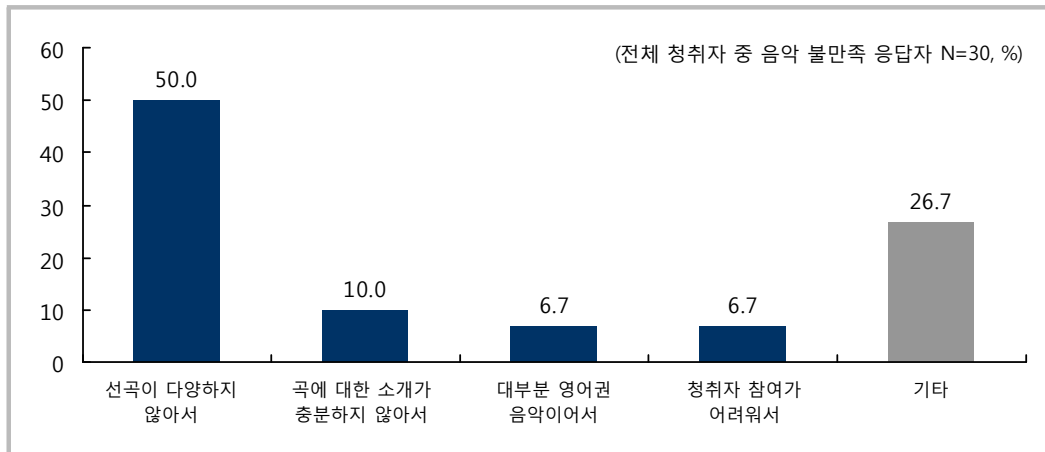


7) 음악 불만족 이유

현재 영어 FM방송의 음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선곡이 다양하지 않아서’(50.0%)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곡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않아서’(10.0%) > ‘대부분 영어권 음악이어서’(6.7%) > ‘청취자 참여가 어려워’(6.7%) 순임.

기타 응답으로는 '영어권 음악 충분하지 않아서', '옛날 음악이 적어서', '특정 장르의 음악 프로그램 확충 필요' 등이 응답돼, 다양한 음악을 듣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 음악 불만족 이유



<표 19> 음악 불만족 이유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선곡이 다양하지 않아서	곡에 대한 소개가 충분하지 않아서	대부분 영어권 음악이어서	청취자 참여가 어려워서	기타
전 체		50.0	10.0	6.7	6.7	26.7
구분	외국인	52.4	9.5	-	-	38.1
	내국인	44.4	11.1	22.2	22.2	-
지역별	서울	80.0	10.0	10.0	-	-
	부산	37.5	12.5	12.5	-	37.5
	광주	33.3	8.3	-	16.7	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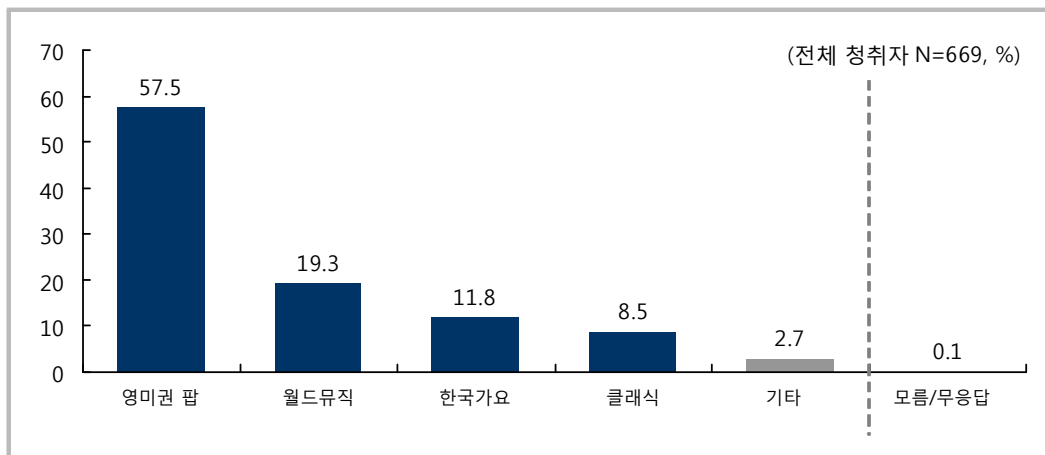
8) 듣고 싶은 음악 장르

영어 FM방송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은 장르를 알아본 결과, ‘영미권 팝’(57.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월드 뮤직’(19.3%) > ‘한국 가요’(11.8%) > ‘클래식’(8.5%) 순으로 나타남.

외국인, 한국인 모두 ‘영미권 팝’에 대한 청취 니즈가 가장 큰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 ‘한국 가요’, 내국인의 경우 ‘월드 뮤직’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기타 응답으로는 ‘락앤롤’ ‘인디밴드 음악’ ‘재즈’ 등이 응답됨.

[그림 24] 듣고 싶은 음악 장르



<표 20> 듣고 싶은 음악 장르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1+2+3순위 기준)		영미권 팝	월드뮤직	한국가요	클래식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57.5	19.3	11.8	8.5	2.7	0.1
구분	외국인	44.9	17.6	19.9	9.1	8.0	0.6
	내국인	62.1	19.9	8.9	8.3	0.8	-
지역별	서울	60.6	18.1	10.0	10.2	0.9	0.2
	부산	52.6	21.1	18.4	4.4	3.5	-
	광주	50.4	22.1	12.4	6.2	8.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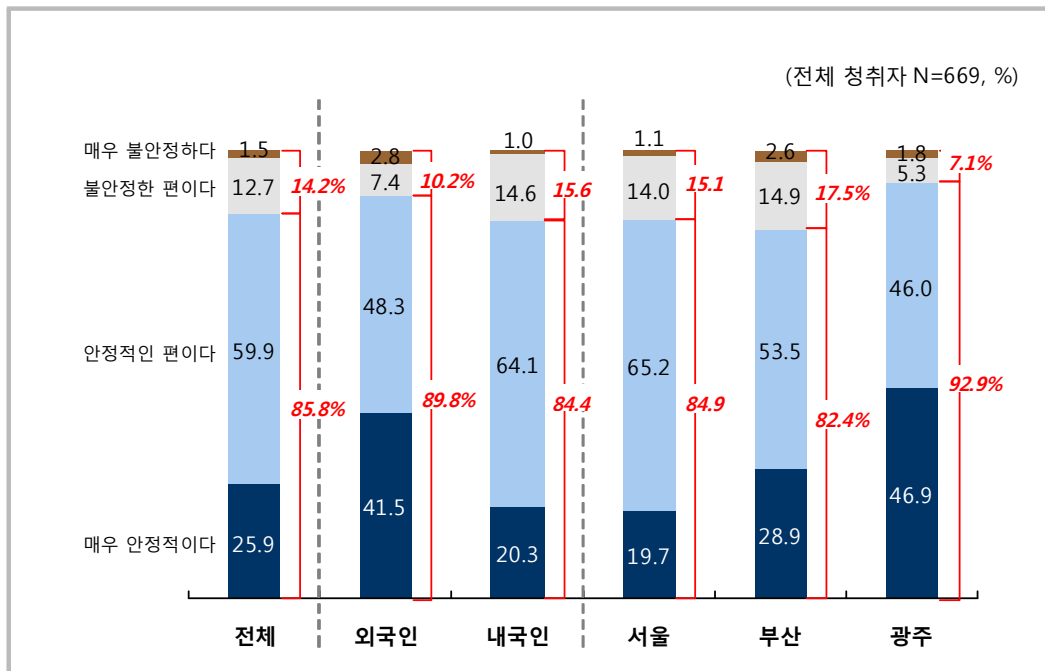
9) 수신 상태

청취자를 대상으로 영어 FM방송 수신 상태에 대해 물은 결과, 청취자의 85.8%가 ‘안정적’이라고 답하였으며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14.2%로 적음.

수신 상태 평가를 방송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가 92.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수신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란 지적이 다른 지역 대비 큰 폭 높게 나타남.

서울(84.9%)과 부산(82.4%)은 비슷한 평가를 받음.

[그림 25] 수신 상태



4. 채널 도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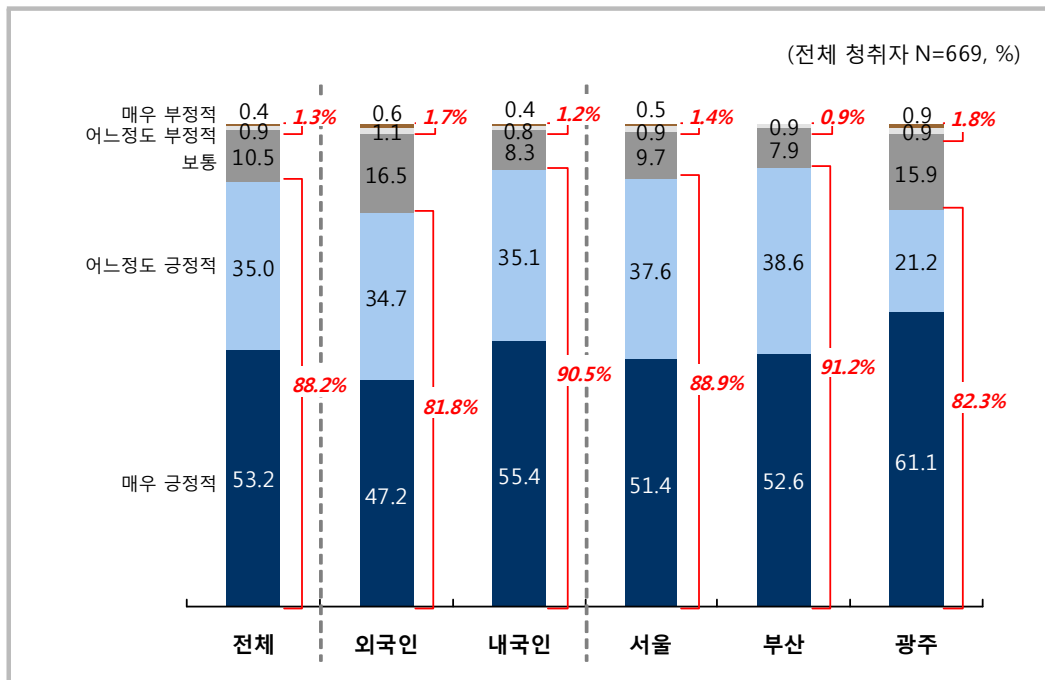
1) 영어 FM방송 전국 확대에 대한 의견

청취자는 영어 FM방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53.2%, ‘어느정도 긍정적’ 35.0%로 대부분(88.2%)이 찬성하고 있음.

외국인, 내국인 모두 영어 FM방송 전국 확대에 긍정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내국인이 외국인 대비 8.7%p 높게 나타남.

부정 의견은 외국인, 내국인 모두 1%대로 적음.

[그림 26] 영어 FM방송 전국 확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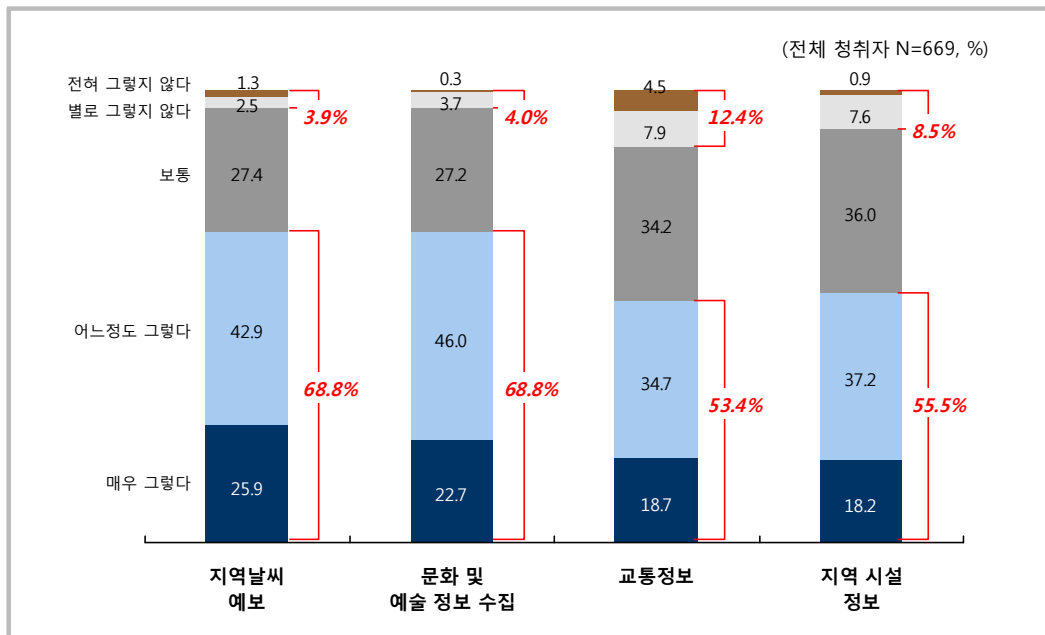
2)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방송 내용별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지역 날씨 예보’, ‘문화 및 예술 정보 수집’이 ‘(매우+어느 정도)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68.8%임.

‘지역 시설 정보’와 ‘교통 정보’는 각각 55.5%, 53.4%가 ‘(매우+어느 정도)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전혀+별로)도움이 되지 않는’ 방송 내용으로는 ‘교통 정보’가 12.4%로 네 가지 방송 내용 중 가장 많이 지적됨.

[그림 27]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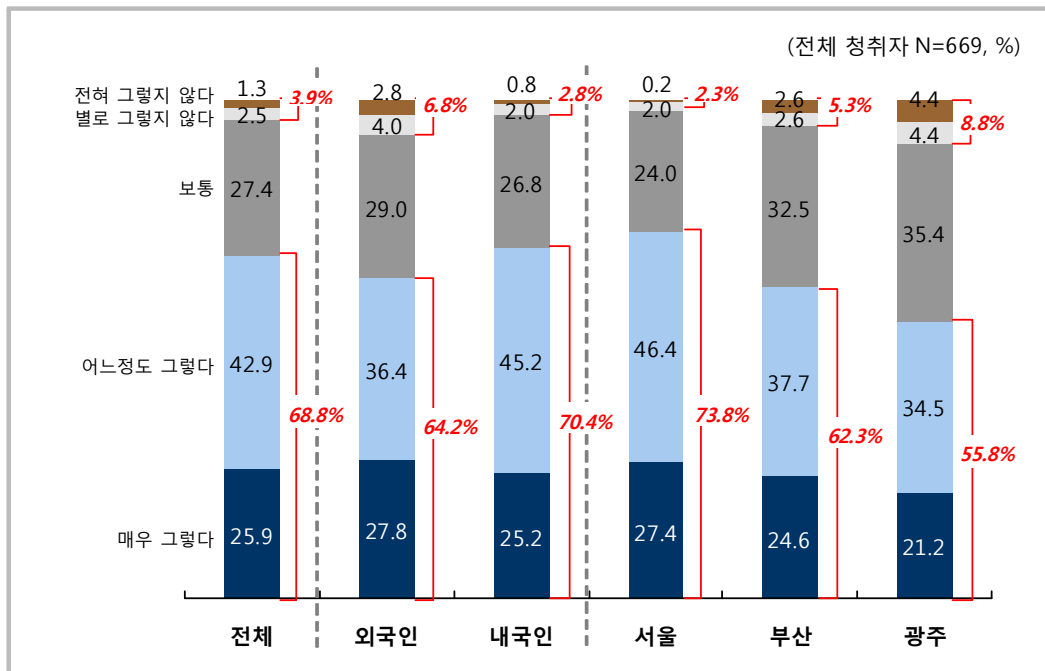
2-1)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지역 날씨 예보

영어 FM방송이 제공하는 ‘지역 날씨 예보’가 실제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68.8%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9%로 낮음.

외국인보다 내국인에서 지역 날씨 예보에 대한 유용성을 높게 평가한 가운데, 방송 권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 광주 순임.

외국인, 내국인 모두 부정 의견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임.

[그림 28]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지역 날씨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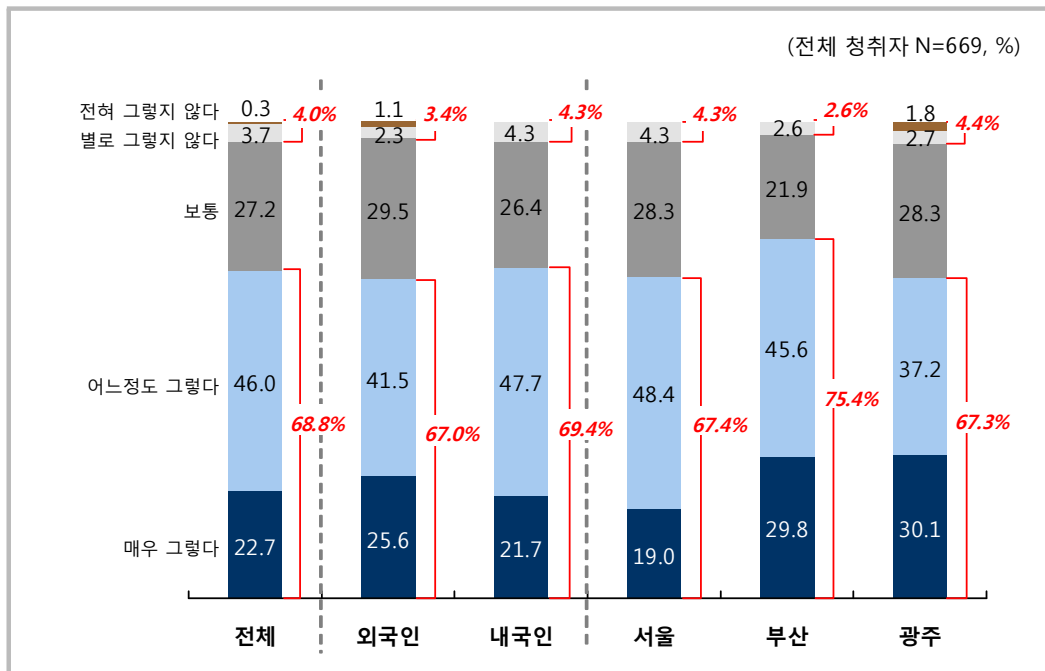
2-2)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문화 및 예술정보 수집

영어 FM방송이 제공하는 ‘문화 및 예술정보 수집’ 관련 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청취자의 68.8%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문화 및 예술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비슷한 긍정평가를 내림.

외국인, 내국인 모두 부정 의견은 4% 미만으로 낮은 편임.

[그림 29]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문화 및 예술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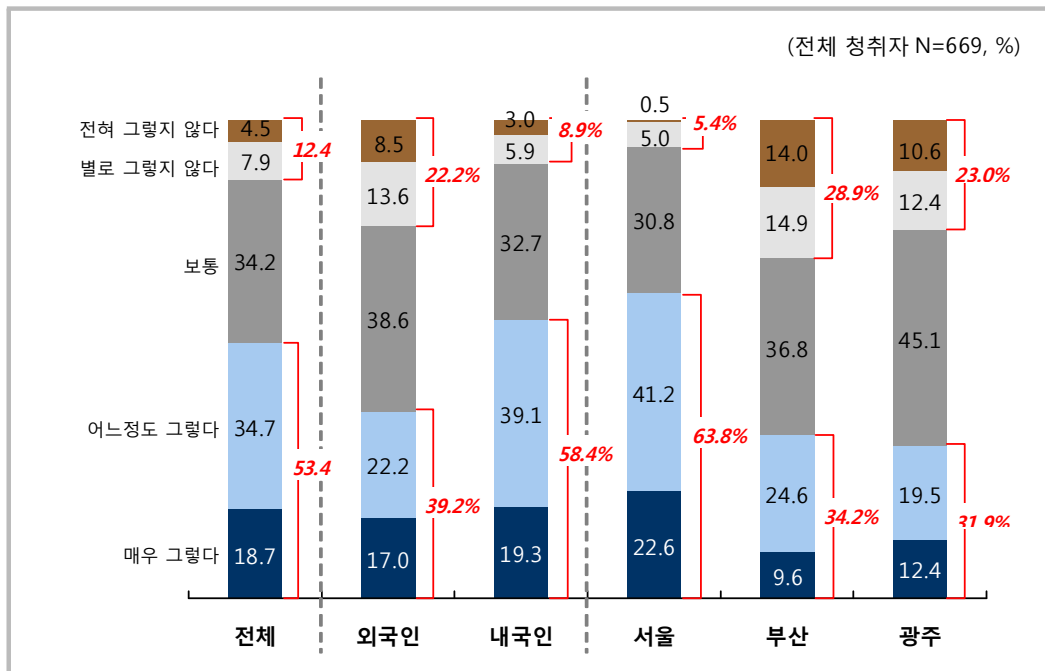
2-3)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교통 정보

영어 FM방송이 제공하는 ‘교통 정보’ 관련 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물은 결과, 청취자의 절반 이상(53.4%)이 긍정 평가를 내림. 이는 앞서 ‘지역 날씨 예보’(68.8%), ‘문화 및 예술정보 수집’(68.8%)에 비해 유용성이 낮은 편임.

‘교통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외국인보다 내국인에서 19.2%p 더 높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에서는 ‘교통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22.2%로 적지 않음.

[그림 30]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교통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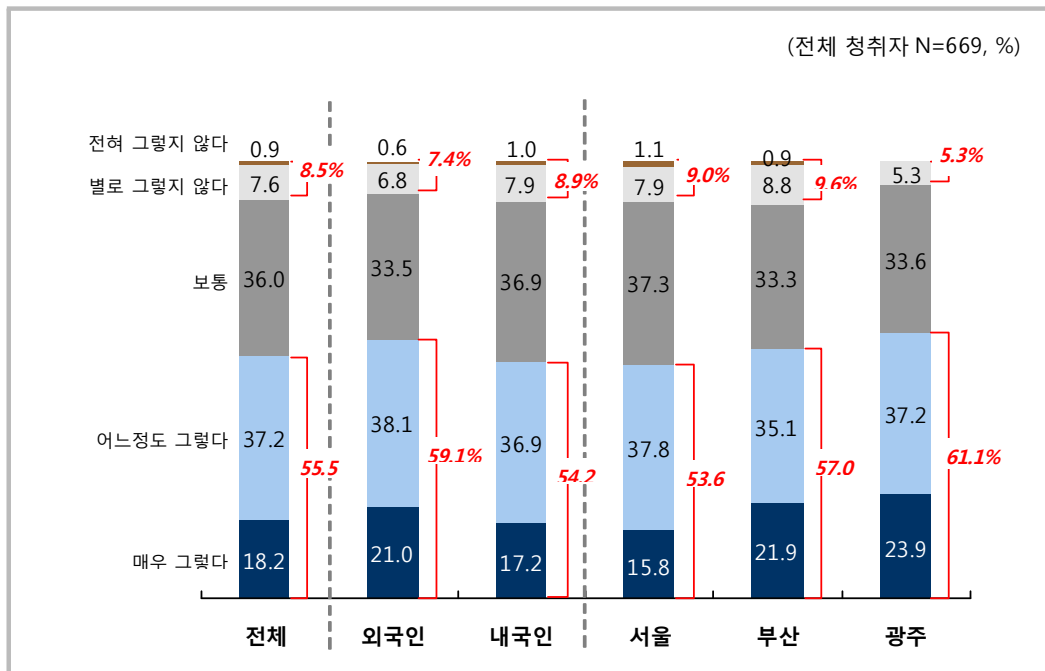
2-4)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지역 시설 정보

영어 FM방송이 제공하는 ‘지역 시설 정보’ 관련 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는 55.5%로 앞서 ‘교통 정보’에 대한 유용성과 비슷함.

‘지역 시설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외국인이 내국인 대비 소폭(4.9%p) 앞선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는 8% 내외로 차이가 없음.

광주 지역 청취자에서 지역시설 정보 제공이 유용하다는 의견이 6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 방송 내용별 생활 유용성 - 지역 시설 정보



3) 방송 내용 중 생활 도움이 된 정보

청취자에게 영어 FM방송 내용 중 이미 제시된 ‘지역 날씨’, ‘문화 및 예술’, ‘교통’, ‘지역 시설’ 이외에 도움이 된 정보가 있었는지를 물은 결과, 외국인의 77.8%, 내국인의 38.1%가 응답하지 못함.

외국인의 경우 ‘재미/흥미 있는 콘텐츠 제공’, ‘외국인의 시각 이해’, ‘지역 정보’ 등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내국인의 경우 방송 자체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외에 ‘생활정보’, ‘뉴스’ 등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표 21> 방송 내용 중 생활 도움이 된 정보 - 외국인

내 용	%
재미/흥미 제공	5.1
외국인의 시각 이해	4.0
지역 정보	3.4
뉴스	2.8
이벤트 소식 정보	1.7
음악을 듣고 스트레스 해소	1.7
문화가 소식	1.1
날씨	1.1
생활 정보	1.1
⋮	⋮
없다/ 모름/ 무응답	77.8

<표 22> 방송 내용 중 생활 도움이 된 정보 - 내국인

내 용	%
영어 공부	26.4
생활 정보	5.1
뉴스	4.9
음악을 듣고 스트레스 해소	4.1
외국인의 시각 이해	4.1
재미/흥미 제공	3.9
문화가 소식	3.4
지역 정보	3.2
교통 정보	2.8
세계 문화 체험/경험	1.8
날씨	1.0
시청자의 참여	0.8
이벤트 소식 정보	0.4
⋮	⋮
없다/ 모름/ 무응답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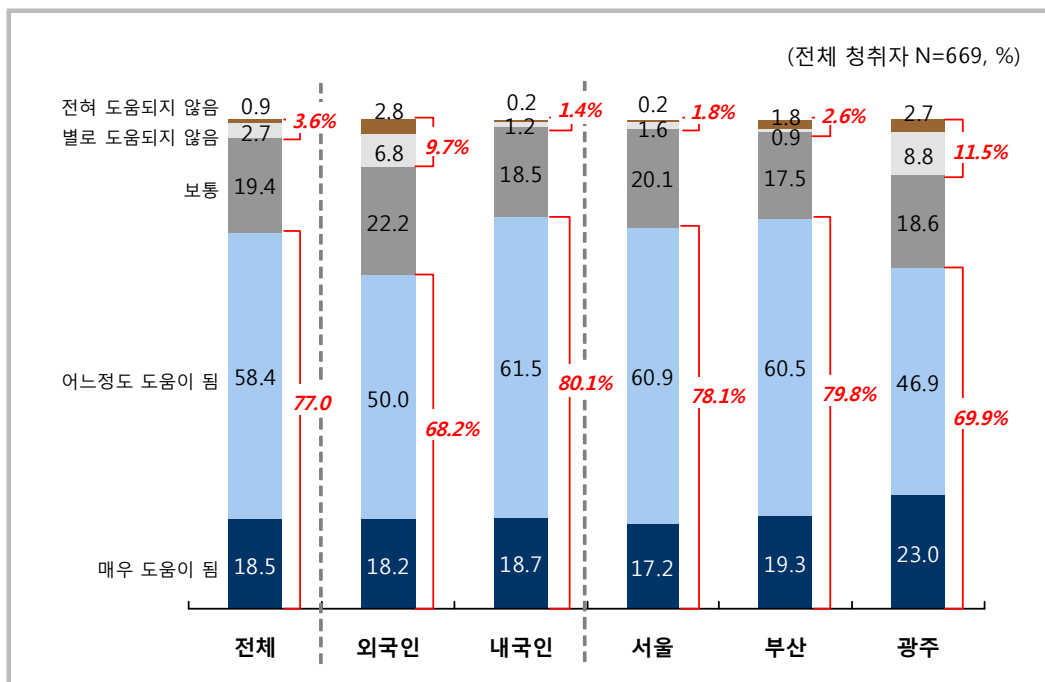
4) 영어 FM방송의 한국 생활 도움 정도

영어 FM방송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묻은 결과, 청취자의 77.0%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3.6%로 매우 적음.

한국 생활 도움 긍정 평가는 외국인 68.2%, 내국인 80.1%로 내국인들이 영어 FM방송이 외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더 높게 나타남.

현재 외국인의 영어 FM방송 청취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영어 FM방송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 영어 FM방송의 한국 생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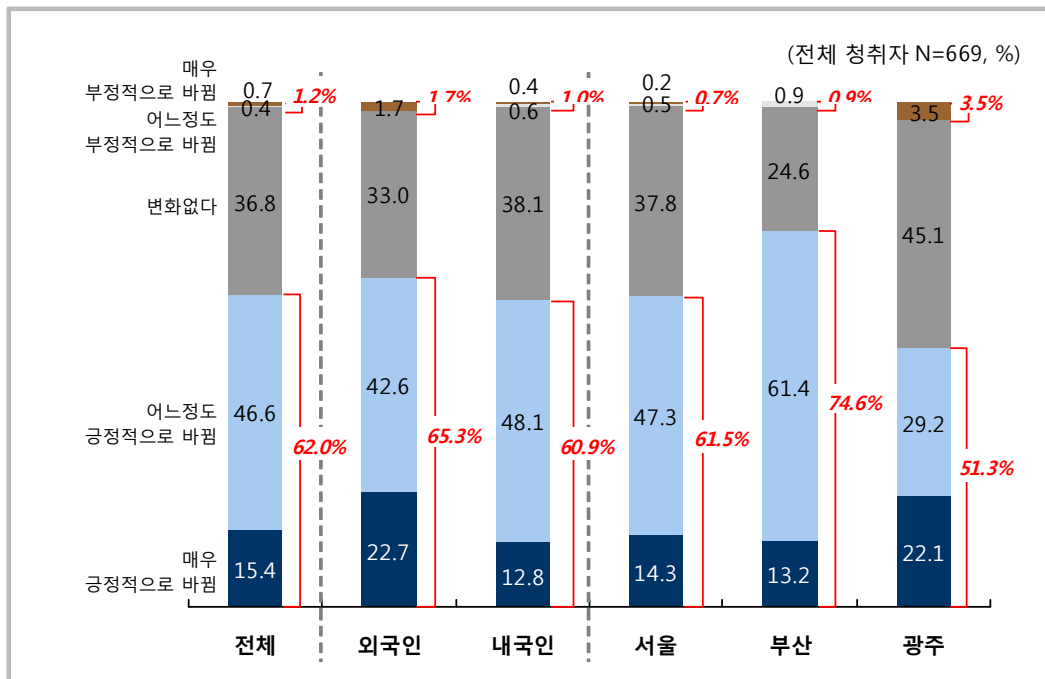
5) 영어 FM방송 청취 후 한국 인식 변화

영어 FM방송 청취 후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묻은 결과, 청취자의 62.0%가 이 전보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으며 이전과 ‘변화 없다’ 36.8%,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1.2%로 나타남.

한국에 대한 인식 긍정 변화는 외국인 65.3%, 내국인 60.9%로 외국인의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남.

방송 권역별로는 부산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서울, 광주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33] 영어 FM방송 청취 후 한국 인식 변화



5. 제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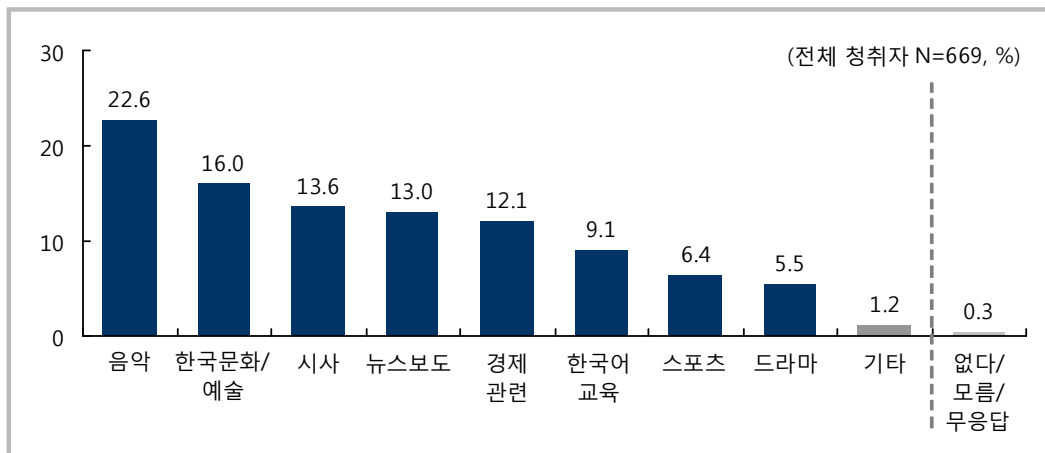
1) 확대 개편 희망 장르

영어 FM방송에서 더 확대 개편되었으면 하는 장르를 묻은 결과, 청취자들은 ‘음악’(22.6%)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16.0%) > ‘시사’(13.6%) > ‘뉴스보도’(13.0%) > ‘경제 관련’(12.1%) > ‘한국어 교육’(9.1%) 순으로 조사됨.

외국인들은 ‘시사’와 ‘한국어 교육’, 내국인들은 ‘뉴스 보도’와 ‘경제 관련’ 장르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방송 권역별로는 서울은 ‘음악’, 부산은 ‘음악’과 ‘한국 문화/예술’, 광주는 ‘한국 문화 예술’과 ‘시사’에 대한 지적이 각각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4] 확대 개편 희망 장르



<표 23> 확대 개편 희망 장르 - 응답자 특성별

(%)

구 분		음악 전문	한국 문화/ 예술	시사	뉴스 보도	경제 관련	한국 교육	스포츠	드라마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22.6	16.0	13.6	13.0	12.1	9.1	6.4	5.5	1.2	0.3
구분	외국인	21.6	15.3	21.0	9.1	8.0	13.1	2.3	6.8	1.7	1.2
	내국인	22.9	16.2	11.0	14.4	13.6	7.7	7.9	5.1	1.0	0.2
지역별	서울	24.9	13.6	11.8	14.7	15.6	7.2	7.0	4.1	0.9	0.2
	부산	21.9	20.2	14.0	12.3	6.1	8.8	7.0	9.6	-	-
	광주	14.2	21.2	20.4	7.1	4.4	16.8	3.5	7.1	3.5	1.8

2) 영어 FM 향후 개선할 점

영어 FM방송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내국인이 외국인 대비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떠올림.

외국인들은 ‘다양한 음악 선곡’(6.3%), ‘다양한 프로그램’(6.3%) 등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외에 ‘진행자 교체’(6.3%) ‘뉴스 확대’(3.4%), ‘지역 정보’(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내국인들은 ‘다양한 프로그램’(17.8%)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홍보 확대’(9.9%), ‘방송 전국 확대’(8.9%), ‘주파수 잘 안잡힘’(7.7%) 등 현재 영어 FM방송의 외부 환경에 대한 개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음.

<표 24> 영어 FM 향후 개선할 점 - 외국인

내용 - 상위 10위	%
다양한 음악 선곡	6.8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6.3
진행자 교체	6.3
뉴스 확대	3.4
지역정보	2.8
한국 관련 소식이 많았으면	2.3
교통정보	1.1
청취자 참여 확대	1.1
홍보 많이 했으면	0.6
인터넷 방송 실시 했으면	0.6
⋮	⋮
없다/ 모름/ 무응답	65.3

<표 25> 영어 FM 향후 개선할 점 - 내국인

내용 상위 10위	%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17.8
홍보 많이 했으면	9.9
전국권으로 확대	8.9
주파수 잘 안잡힘	7.7
진행자 교체	5.3
다양한 음악 선곡	5.1
한국 관련 소식이 많았으면	2.8
뉴스 확대	2.8
너무 외국인 위주임	2.6
청취자 참여 확대	2.4
⋮	⋮
없다/ 모름/ 무응답	26.0

III. 영어 FM방송 청취자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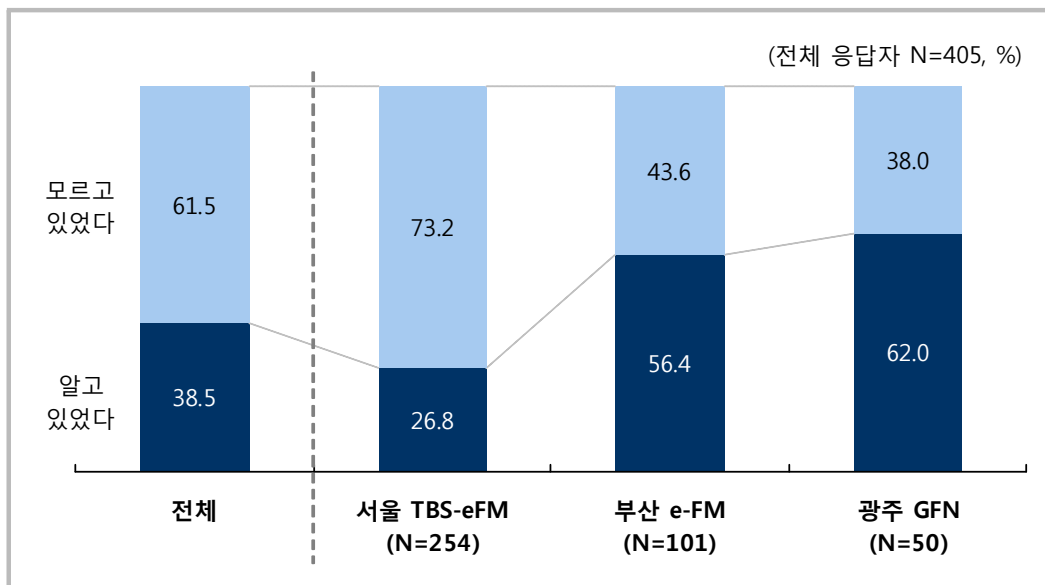
1. 영어 FM방송 인지 및 청취경험

1) 영어 FM방송 인지도

서울,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405명을 대상으로 영어 FM방송 인지 여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38.5%가 인지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서울 TBS-eFM이 26.8%의 인지도로 상대적으로 낮고, 부산(56.4%)과 광주(62.0%)는 인지자가 절반 이상임.

[그림 35] 영어 FM방송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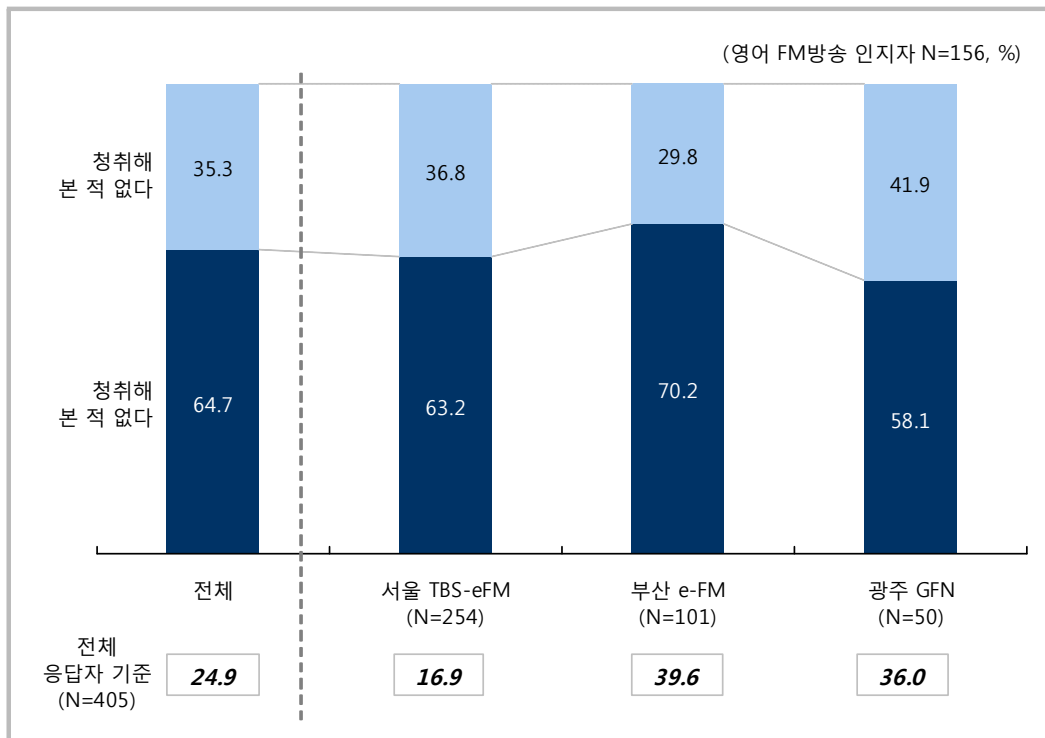
2) 영어 FM방송 청취 경험

영어 FM방송 인지자 156명에게 청취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 64.7%가 청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인지자의 청취 경험률은 Busan eFM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TBS-eFM 63.2%, 광주 GFN 58.1%순으로 나타남.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24.9%가 청취 경험이 있으며, Busan eFM과 광주 GFN이 각각 39.6%, 36.0%로 서울 TBS-eFM에 비해 높은 편임.

[그림 36] 영어 FM방송 청취 경험



2. 영어 FM방송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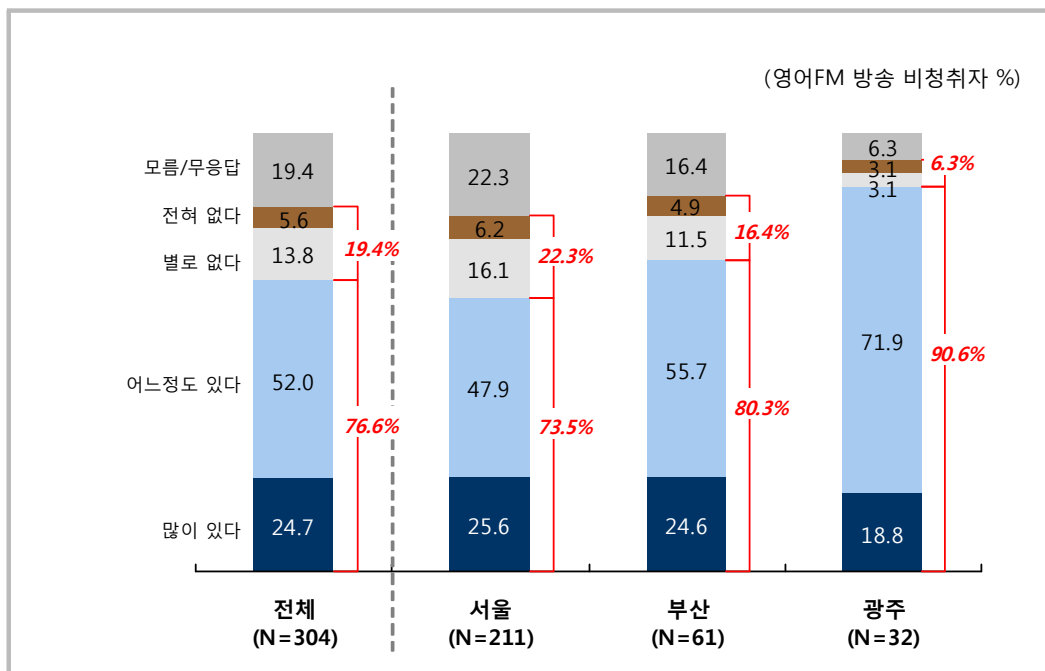
1) 영어 FM방송 청취 의향

영어 FM방송 비청취자에게 향후 영어 FM 청취 의향을 묻은 결과, 비청취자의 76.6%가 청취 의향이 ‘(어느정도+많이)있다’고 응답함.

청취할 의향이 ‘많이 있다’는 적극적인 청취자는 비청취자 4명 중 1명(24.7%) 정도임.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이 90.6%의 가장 높은 청취 의향을 보였으며, 부산(80.3%), 서울(73.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7] 영어 FM방송 청취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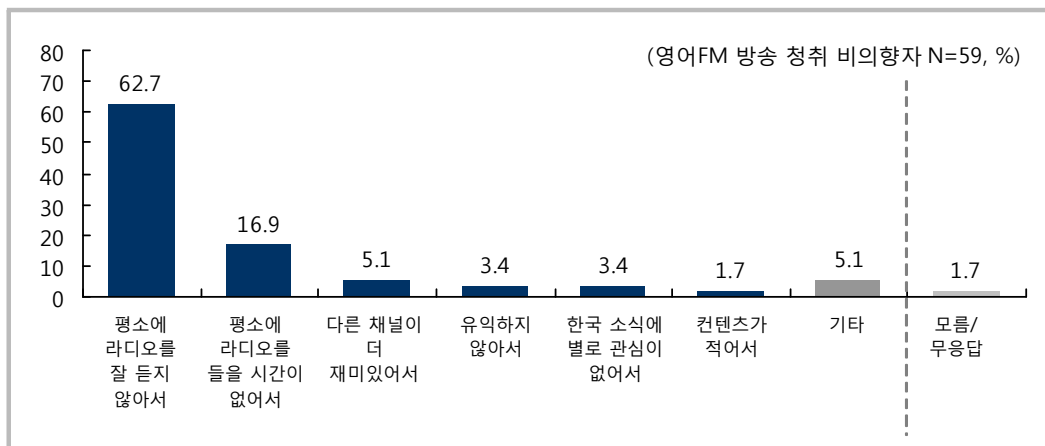


2) 영어 FM방송 청취 비의향 이유

영어 FM방송 청취 비의향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평소에 라디오를 잘 듣지 않아서’가 62.7%로 가장 많아 라디오 자체에 니즈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평소에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가 16.9%로 다음으로 많아 라디오 비청취가 이유인 경우가 열명 중 여덟명 꼴(79.6%)로 많음.

[그림 38] 영어 FM방송 청취 비의향 이유



<표 26> 영어 FM방송 청취 비의향 이유 - 응답자 특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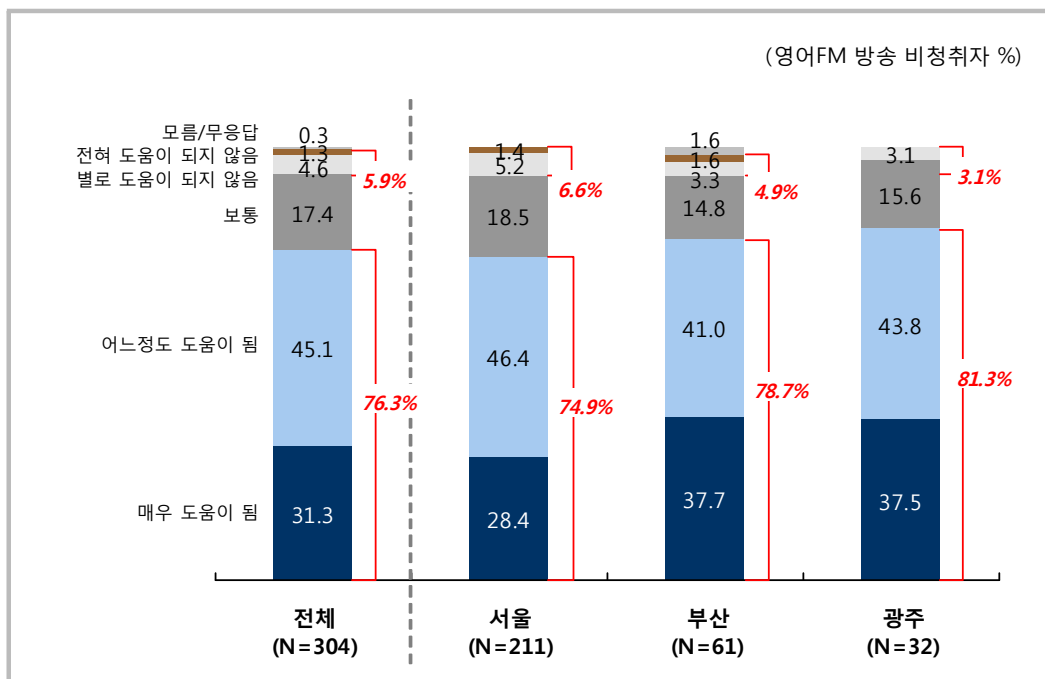
구 분		평소에 라디오를 잘 듣지 않아서	평소에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른 채널이 더 재미있어서	유익하지 않아서	한국 소식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컨텐츠가 적어서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62.7	16.9	5.1	3.4	3.4	1.7	5.1	1.7
지역별	서울 (N=47)	63.8	17.0	2.1	4.3	4.3	-	6.4	2.1
	부산 (N=10)	50.0	20.0	20.0	-	-	10.0	-	-
	광주 (N=2)	100.0	-	-	-	-	-	-	-

3) 영어 FM방송 도입 시 한국 이미지 긍정 인식 도움 정도

영어 FM방송 도입 시 한국의 이미지를 더 좋게 느끼는데의 도움에 대해, 비청취자의 76.3%가 ‘(어느정도+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청취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62.0%)보다 더 높음.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응답은 5.9%로 나타나며, 전 지역에서 7% 미만으로 적음.

[그림 39] 영어 FM방송 도입 시 한국 이미지 긍정 인식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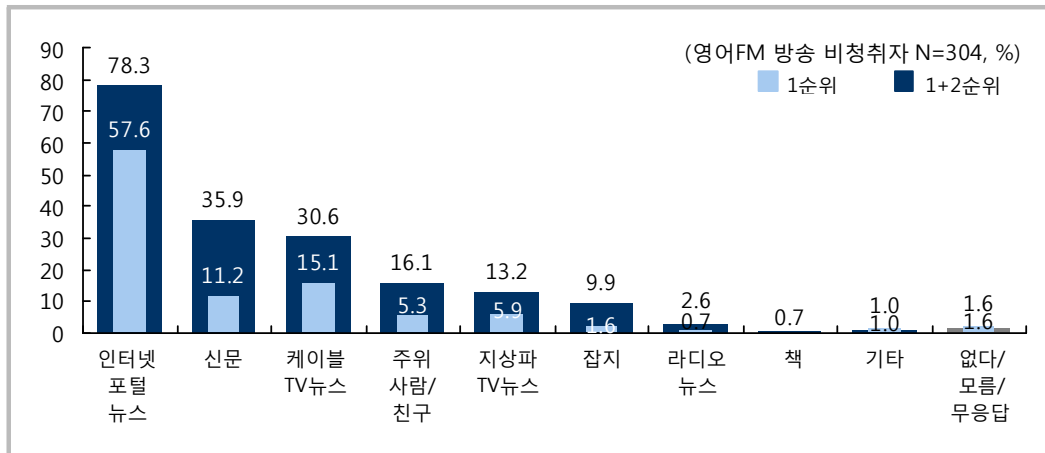
3. 기타

1) 한국 뉴스 접촉 매체

한국 뉴스 주요 접촉 매체로는 ‘인터넷 포털 뉴스’가 78.3%(1+2순위)로 가장 많으며, 신문(35.9%), 케이블 TV뉴스(30.6%) 등이 뒤를 이음.

TV뉴스를 통한 접촉이 케이블, 지상파를 합쳐 43.8%(1+2순위)로 나타나며, 라디오 뉴스를 통한 접촉은 2.6%(1+2순위)로 미비함.

[그림 40] 한국 뉴스 접촉 매체



<표 27> 한국 뉴스 접촉 매체 - 응답자 특성별

(1+2순위, %)

구 분		인터넷 포털 뉴스	신문	케이블 TV 뉴스	주위 사람/친구	지상파 TV 뉴스	잡지	라디오 뉴스	책	기타	없다/모름/무응답
전 체		78.3	35.9	30.6	16.1	13.2	9.9	2.6	0.7	1.0	1.6
지역별	서울	76.8	38.9	28.9	15.2	15.6	8.5	1.4	0.9	-	2.4
	부산	82.0	31.1	31.1	11.5	11.5	14.8	8.2	-	3.3	-
	광주	81.3	25.0	40.6	31.3	-	9.4	-	-	3.1	-

2) 한국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점

한국 거주 시 불편한 점으로 ‘언어 장벽’이 45.1%로 가장 많으며, 그 외 불편한 점이 10% 미만으로, ‘언어 장벽’에 대한 지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교통/ 교통체증’(3.9%), ‘운전을 무섭게 한다’(2.0%), ‘한국말을 못하면 버스 타는 것이 복잡함’(1.0%) 등 교통 관련 지적이 다양하게 응답됨.

〈표 28〉 한국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점

한국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점 (상위 10위, N=304)	%
언어장벽	45.1
음식문제	8.2
교통/ 교통체증	3.9
문화가 다르다	3.0
운전을 무섭게 한다	2.0
안내표시가 영어화 되었으면 한다	1.6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1.3
공공시설 이용	1.3
외국인을 이상하게 쳐다본다	1.0
한국말을 못하면 버스타는 것이 복잡하다	1.0
혼잡하다	1.0
⋮	⋮
없다/ 모름/ 무응답	17.4

IV. 요약 및 결론

1. 조사 내용 요약

본 조사는 영어 FM방송의 청취 행태 분석을 통해서 방송이 시작된 지 1년이 된 서울, 부산, 광주 지역 영어 FM방송의 효과를 점검하고, 영어 FM방송 청취자들의 의견을 방송 제작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또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들의 영어 FM방송 인지도 및 청취율, 향후 청취 의향을 알아봄.

조사는 영어 FM방송 청취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와 일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로 병행 실시됨. 영어 FM방송 청취자 조사는 내·외국인 포함 서울 442명, 부산 114명, 광주 113명, 총 669명을 대상으로, 일반 외국인 조사는 서울 254명, 부산 101명, 광주 50명, 총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1) 영어 FM 청취자 조사 결과

(1) 청취 행태

서울, 부산, 광주 영어 FM방송 청취자 669명을 대상으로 영어 FM 청취 행태를 알아봄.

먼저, 청취 빈도로는 일주일에 1일 이상 청취자가 80.1%로, 그 중 매일 청취자는 18.7%로 나타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청취 빈도는 '일주일에 1~2회'로 26.3%였으며, 외국인에서는 '일주일에 3~4일' 청취자가 23.9%로 가장 많음.

요일별 청취율은 평일 청취율이 50% 내외인 반면, 주말(토~일)은 20%대로 나타남. 평일 청취율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고르게 나타난 것이 특징임.

하루 평균 청취 시간은 '30분 이상~1시간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미만' 청취자가 69.3%로 나타남. '1시간 이상' 청취자는 30.7%로 10명 중 3명 정도임.

주 청취 장소는 '차 안에서 카라디오로' 듣는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집'(25.9%), '학교/직장 등 집을 제외한 고정된 장소'(16.9%), '이동 중 개인 라디오

로'(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외국인의 경우 '차 안에서 카라디오' 응답이 42.0%로 비교적 많음.

주 청취 기기로는 카라디오를 포함한 '라디오'가 58.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인터넷', 'PMP/MP3 등 휴대용 기기'가 각각 20% 정도로 응답됨. 주 청취 장소와 같은 경향으로 외국인의 경우 '카라디오를 포함한 라디오' 응답이 내국인에 비해 12.2%p 많음.

영어 FM방송 청취자가 영어 FM을 청취하게 된 계기로는 '주위 사람의 권유'(32.7%),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31.7%)가 많이 응답됨. '영어 FM 광고/홍보 활동'을 통해서 청취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14.5%로 적지 않음. 내국인의 경우 '인터넷 검색하다가' 응답이 24.1%로 많은 편임.

청취 이유로는 외국인 청취자의 경우 '뉴스/시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응답이 17.6%로 가장 많았으며, 내국인 청취자의 상당수(62.3%)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취하는 것으로 조사됨.

청취자의 74.3%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어 FM방송을 권유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의 경우 '진행 숨씨'(16.1%), '생활 정보'(15.4%),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15.4%) 등의 다양한 이유로 청취를 권유함. 내국인 청취자의 경우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유했다는 응답이 63.2%로 많음.

(2) 프로그램 청취 경험률 및 선호도

각 지역별 영어 FM방송 프로그램별 청취 경험률을 알아본 결과, 서울 TBS-eFM의 'This morning', Busan eFM의 'Morning wave in Busan' 등 오전 7시 아침 출근 시간대 프로그램의 청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광주 GFN의 경우는 오후 6시에 방송되는 'City of Light'의 청취율이 가장 높음. 청취 프로그램 중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꼽힘.

정규 뉴스 프로그램 청취 경험률은 68.9%로 외국인 청취자와 내국인 청취자간의 경험률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서울 TBS-eFM에서는 아침 8시 뉴스 프로그램인 'BBS News'가 39.9%로 가장 높은 청취 경험률을 보였으며, Busan eFM은 오전 9~10시, 오후 6시 시간대 뉴스들이 30%대의 청취 경험률을 보임. 광주 GFN은 오후 6시 시간

대 뉴스가 61.4%로 가장 높은 청취 경험률을 기록함.

영어 FM방송을 통해 얻고 싶은 뉴스 정보로는 ‘국내 사회/문화 뉴스’가 57.0%(1+2+3순위)로 가장 많았으며, ‘세계 사회/문화 뉴스’(48.7%), ‘지역 소식’(37.8%) 등이 뒤를 이음.

프로그램의 중요 구성 요소로 외국인은 ‘한국에 대한 정보의 질’(29.0%)을 가장 중시했으며 내국인 청취자는 ‘영어 콘텐츠의 질’(45.4%)을 가장 중시해 인식의 차이를 드러냄.

영어 FM방송의 음악 만족도는 70.4%로 나타났으며, 내국인의 만족도가 74.8%로 외국인 청취자의 만족도(58.0%)를 앞섬. 음악 불만족 이유로는 ‘다양하지 않은 선곡’(50.0%)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듣고 싶은 음악 장르로는 ‘영미권 팝’이 57.5%로 가장 많음.

영어 FM방송 수신 상태에 대해서는 85.8%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림. 특히 외국인 청취자의 41.5%, 광주 지역의 46.9%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응답함.

(3) 채널 도입의 성과

영어 FM방송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 88.2%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외국인, 내국인 청취자 모두 영어 FM방송 전국 확대에 긍정 의견이 높았으며, 특히 내국인이 외국인 대비 10%p 가량 높게 나타남.

영어 FM방송 내용별 생활 도움 정도로는 ‘지역 날씨 예보’, ‘문화 및 예술 정보 수집’의 유용성이 68.8%, ‘교통 정보’와 ‘지역 시설 정보’ 유용성이 55% 내외로 나타남. 그 외 방송 내용 중 생활에 도움이 된 정보로는 외국인 청취자는 ‘재미/흥미 제공’, 내국인 청취자는 ‘영어 공부’를 가장 많이 응답함.

영어 FM방송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외국인 청취자의 68.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외국인 청취자의 경우, 영어 FM방송 청취 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65.3%로 나타남. 외국인 청취자 3명 중 2명 이상은 영어 FM방송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채널 제안 사항

영어 FM방송에서 더 확대 개편되었으면 하는 장르에 대해서 ‘음악 전문 방송’에 대한 니즈가 높았으며, 외국인 청취자의 경우 ‘시사’와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큼.

앞으로 영어 FM방송이 개선할 점으로는 외국인 청취자의 경우 ‘다양한 섹션’(6.3%), ‘다양한 프로그램’(6.3%) 등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내국인 청취자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17.8%)에 대한 지적 이외에도 ‘홍보 확대’, ‘방송 전국 확대’, ‘주파수 잘 안 잡힘’ 등 영어 FM방송의 외부 환경 개선에 대한 언급이 많음.

2) 일반 외국인 조사 결과

영어 FM방송 가청 지역인 서울,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405명을 대상으로 영어 FM 관련 인식을 알아봄. 첫 번째로, 영어 FM방송 인지도는 38.5%로 나타남. 특히, Busan eFM과 광주 GFN의 경우 각각 56.4%, 62.0%의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임. 서울 TBS-eFM은 26.8%임.

청취 경험률은 24.9%로 응답자 4명 중 1명은 영어 FM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음. 청취 경험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39.6%의 청취 경험률을 보였으며, 광주 36.0%, 서울 16.9% 순임.

영어 FM방송 비청취자들 중 76.6%가 영어 FM방송을 들어본 적 없지만 앞으로는 영어 FM을 청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4.7%는 적극적인 청취 의향을 나타냄. 향후에 영어 FM방송을 청취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들은 ‘평소에도 라디오를 잘 듣지 않아서’(62.7%), ‘평소에 라디오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16.9%) 등의 이유를 밝혀 라디오 자체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음.

영어 FM방송 도입 시 한국 이미지를 더 좋게 느끼는데 76.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한국 뉴스 주요 접촉 매체로는 ‘인터넷 포털 뉴스’가 78.3%(1+2순위)로 가장 많으며, 라디오 뉴스를 통한 접촉은 2.6%(1+2순위)로 적음. 한국 거주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45.1%가 ‘언어 장벽’을 가장 많이 응답함.

2. 주요 발견 사항

1) 외국인 청취자의 청취 행태 특징

외국인 청취자의 경우 처음 영어 FM을 청취하게 된 계기가 ‘주위 사람의 권유’(46.6%)로 나타나, 내국인 청취자(27.8%)에 비해 자신의 커뮤니티 내에서의 추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됨. 본인의 청취 권유 경험도 84.7%로 내국인 청취자(70.6%)에 비해 주위에 추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청취 이유로는 ‘뉴스/시사 정보’ 17.6%, ‘생활 정보를 위해서’ 13.1%,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 11.9% 등이 많아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통로로 영어 FM을 활용하고 있음. 청취 권유 이유로도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되어서’ 15.4%, ‘생활 정보를 위해서’ 15.4% 등이 응답되어 영어 FM 청취가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음.

프로그램 중요 구성 요소 평가에서도 ‘한국에 대한 정보의 질’이 29.0%로 가장 많이 응답돼, 한국에 대한 정보가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주요한 잣대로 쓰이고 있음. 특히, 영어 FM을 통해 얻고 싶은 뉴스 정보로 ‘국내 사회/문화’, ‘지역 소식’을 55%(1+2+3순위)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응답해 세계 뉴스보다는 국내 및 지역 소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영어 FM방송이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8.2%,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65.3%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 FM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영어 FM이 내국인 청취자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 청취자들에게는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외국인 청취자들이 한국의 시사 문제나 뉴스를 영어 FM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재 서울 TBS-eFM, 부산 eFM, 광주 GFN의 선호도 1위 프로그램들이 모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청취자들이 개선할 점으로 꼽은 것 중 ‘다양한 음악 선곡’, ‘다양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관련 개선 요청 다음으로, ‘뉴스 확대’, ‘지역 정보’, ‘한국 관련 소식 많았으면’ 등 한국 관련 뉴스에 대한 니즈를 표현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임.

2) 영어 FM방송 향후 운영 방향

일반 외국인들의 영어 FM방송 인지도가 38.5%로 조사됨. 특히, 서울 TBS-eFM의 인지도가 26.8%로 Busan eFM과 광주 GFN에 비해 낮은 편임. 청취 경험률은 3지역 평균 24.9%, 서울 TBS-eFM은 16.9%임. 그러나 영어 FM방송에 대한 내용 소개 후 향후 청취 의향을 묻은 결과, 청취 의향이 76.6%로 나타나 영어 FM방송 홍보가 청취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서울, 부산, 광주 지역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한국 뉴스를 접촉하는 매체로 ‘인터넷 포털 뉴스’(78.3%, 1+2+3순위)를 꼽았으며, ‘라디오 뉴스’ 지적은 2.6%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영어 FM 홍보/광고 활동 역시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서는 청취 경험률과 선호도가 높은 주요 프로그램들이 주로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 6-8시 퇴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국인 청취자들의 주 청취 장소가 ‘운전 중 카라디오’(42.0%)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간대에 타 프로그램 홍보 및 소개가 이루어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거주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여러 가지 지역 정보를 담아 외국인 청취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할 것임. 실제로 Busan eFM에서 청취 경험률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인 ‘Morning wave in Busan’은 국내 뉴스와 함께 부산 지역 소식을 전해주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10-11

영어 FM 청취 행태 조사 보고서

발 행 일 2010년 8월 (비매품)

발 행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전화 : 02-750-1114
E-mail : webmaster@kcc.go.kr
Homepage : www.kcc.go.kr

인 쇄 처 아람인쇄(02-730-8493)
